

청소년현장, 이시대의 방향과 관점 다시, 청소년운동으로

Again,

청소년현장,
이 시대의 방향과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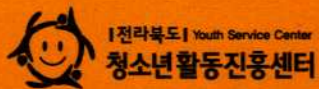
다시, 청소년운동으로

Youth

일시 2016. 11. 26.(토) 13:00~18:00
장소 어린이공연장 군산시대학로 330
(구. KBS방송국 공개홀)

Movement

청소년현장, 이시대의 방향과 관점
다시, 청소년운동으로



전라북도 Youth Service Center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www.jb0479.or.kr / TEL 063-232-0479
블로그 <http://blog.naver.com/youth0479>
페이스북 www.facebook.com/jb0479



전라북도 Youth Service Center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Again,

청소년현장,
이 시대의 방향과 관점

다시, 청소년운동으로

Youth

일시 2016. 11. 26.(토) 13:00~18:00

장소 어린이공연장 군산시대학로 330
(구. KBS방송국 공개홀)

공동주최

(사)들꽃청소년세상, 한국시민청소년학회, 글로벌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 군산시,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자치연구소

Movement

일 정 표

구분	주요내용
개회식 -인사말씀 (13:00~13:25)	사회: 이강휴 위원장(청소년자치연구소) 김현수 이사장(사. 들꽃청소년세상) 문동신 시장 (군산시) 정희상 위원장 (군산시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
포럼 Part I -청소년인권과 운동의 역사 (13:30~14:20)	사회. 이용교 회장 (한국시민청소년학회, 광주대학교) 발표1. 최윤진 교수 (중앙대 청소년학과) -청소년인권과 운동 발표2. 김 민 교수 (순천향대 청소년교육상담학과) -현대 청소년운동의 역사
포럼Part II -청소년운동의 영역별 관점 (14:30~15:50)	사회. 천정웅 회장 (글로벌청소년학회, 대구 가톨릭대학교) 발표1. 김현수 이사장((사. 들꽃청소년세상) -청소년보호복지에서의 운동 발표2. 정건희 소장(청소년자치연구소) -청소년참여를 중심으로 한 지역운동 발표3. 심한기 대표(청소년문화공동체 '품') -청소년문화운동 발표4. 박 진 인권활동가(다산인권센터) -우리 사회 인권현장에서의 청소년운동 고민
휴식 (15:50~16:20)	휴식 시간 및 참가자 교류시간
포럼Part III -공간과 현장 관점에서의 청소년운동 (16:20~17:30)	사회. 전성민 대표이사 (고양시청소년재단) 발표1. 한도희 사무총장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시설에서의 청소년운동 발표2. 문유진 대표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후기 청소년의 사회운동 발표3. 홍문기 박사 (전. 독일카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독일에서의 청소년운동
종합토론 (17:3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인사 말씀

김현수

(사)들꽃청소년세상 이사장

늦가을의 길목에서, 좋은 장소에 좋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청소년 운동'을 주제로 이렇게 함께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번 학술제를 준비하기까지 여러 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동으로 주관하신 군산시의 문동신 시장님, 한국시민청소년학회의 이용교 회장님, 글로벌청소년학회의 천정웅 회장님, 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의 전성민 회장님,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원석 센터장님 등 많은 분들의 협력과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청소년 관련 현장 실무자와 연구자 분들에게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운동은 어떠한 뜻과 이상에 의해 조직된 단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활동 과정을 이루어 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단체의 운동은 청소년이 참여의 주체로서 그 사회의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단체시설의 '운동성'이 상당히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 중심적 사회로 변화하고, 청소년시설 위수탁의 집중 및 학교의 보완적인 프로그램 등으로 치부 되는 등 청소년 기관단체에서 진행되는 청소년활동의 운동성은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청소년 기관들의 운동성 약화는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질적인 청소년들의 참여는 청소년운동의 시작이고 그 과정 자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참여는 청소년인권, 청소년문화, 청소년보호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산에서 열리게 된 2016연합 추계 학술제 '다시 청소년운동으로'는 청소년 참여관점에서 청소년 운동의 역사를 살펴보고, 청소년 운동관점에서 다양한 청소년 현장을 조망하고자 합니다.

발표 내용은 이론과 현장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현장 실무자 들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기존의 학술제 틀과는 다소 다르게 발표와 토론 중심으로 청소년관련 현장이 처한 시대적 상황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청소년운동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 조망하고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번 학술제를 통해 청소년관련 현장에서 청소년운동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고견과 활발한 토론이 오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다시, 청소년 운동으로'를 기치로 한 2016 추계연합학술제에 참가해주신 많은 내외빈 여러분과 청소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행사에 참여해 주신 (사)들꽃 청소년세상 김현수 이사장, 한국 시민청소년학회 이용교회장, 한국글로벌 청소년학회 천정웅학회장, 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 전성민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수고해 주신 청소년자치연구소 정건희 소장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학술제는 '다시 청소년 운동으로'를 기치로 하여 청소년 참여 관점에서 청소년 운동의 역사와 청소년 운동 관점에서 다양한 청소년 현장을 조망하고, 현재 청소년 운동의 현황, 이슈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방향 등을 모색하는 대회로, 이번 학술제를 통해 어린이행복도시를 이끌어갈 청소년 여러분의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청소년자치연구소의 역할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며 향후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 참여를 통해 청소년 정책이 가일층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학술제에 오신 청소년 활동현장의 실천가 및 연구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가 청소년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6. 11. 26
군산시장 문동신

祝 辭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이시대의 청소년 현장을 조망하고 청소년 운동의 방향과 관점을 살펴보는 '다시, 청소년 운동으로'를 기치로 한 2016 추계연합학술제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수준높은 행사를 기획하여 주신 청소년자치연구소 정건희 소장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본 학술제에 같이 참여해주시고 청소년 참여, 인권, 진로 등 다양한 활동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계시는 (사) 들꽃청소년세상, 한국시민청소년학회, 한국글로벌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인 청소년들의 참여는 바로 살아 있는 청소년운동으로부터 시작되며 청소년 운동은 청소년인권 운동, 청소년 문화운동, 청소년 보호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제에서 청소년 참여 관점에서 근대 청소년 운동의 역사를 살펴보고 청소년 운동 관점에서 다양한 청소년 현장을 조망하는 의미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학술제에 오신 청소년 활동현장의 실천가 및 연구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이 어린이행복도시의 주체로 청소년활동이 더욱더 정진하기를 기원하면서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16. 11. 26

군산시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 정희상

목 차

1. 청소년인권과 운동	09
(최윤진 교수)	
2. 현대 청소년운동의 역사	23
(김민 교수)	
3. 청소년보호복지에서의 운동	61
(김현수 이사장)	
4. 청소년참여를 중심으로 한 지역운동	71
(정건희 소장)	
5. 청소년문화운동	93
(심한기 대표)	
6. 우리 사회 인권현장에서의 청소년운동 고민	101
(박진 활동가)	
7. 청소년시설에서의 청소년운동	111
(한도희 사무총장)	
8. 후기 청소년의 사회운동	133
(문유진 대표)	
9. 독일에서의 청소년운동	149
(홍문기 박사)	

Again,

청소년 인권의 쟁점과
청소년 참여운동

Youth

최 윤 진
(중앙대학교 교수)

Movement

청소년 인권의 쟁점과 청소년 참여운동

최 윤진 (중앙대학교 교수)

1. 청소년 인권의 쟁점

청소년에게 어떤 권리가 얼마나 보장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쉽게 대답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즉 청소년은 어떤 능력을 지닌 존재이며 사회 내에서 어떤 지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존재로 간주되는지 등에 관한 관점과 입장에 따라 그 답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는 그동안 서로 일치하지 않은 채 상이한 견해와 주장이 제시되면서 청소년 인권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이 글에서는 그 대표적인 쟁점을 과거 필자의 글 중에 발췌하여 다음의 세 분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청소년은 의존적 존재인가 자립적 존재인가?¹⁾

Gillis는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의 다양한 시기적 구분의 기준을 사회 내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역할이 의존(dependence)과 자립(independence)사이의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 의존적 시기는 아동기, 반 의존적 시기는 youth 시기, 자립적 시기는 성인기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adolescence로 지칭되는 청소년기는 20세기에 들어와 신체 생리적으로는 성인과 유사하게 성장했으나 시기적으로는 대부분의 역할을 유예시킨 채 완전 의존적 지위에 머무르게 되는 기형적 시기의 출현을 일컫는 용어로 묘사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과 성인사이의 과도기이면서 성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유예시킨 채 장래를 위한 준비시기, 교육받는 시기로 인식되고 있는 오늘날의 청소년기는 서구사회의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인구학적 변화, 신흥중산층의 출현과 그들의 자녀에 대한 관점 및 기대변화, 그리고 학교제도의 성립 및 확산과정 등의 영향으로 인해 출현하게 된 근대 산업사회의 개념임을 알 수 있다.

1) 최윤진의(2004), 청소년인권론,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서울:교육과학사

전 산업사회에서는 어린 나이에 일찍 출가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해서 스스로 삶을 꾸려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비록 신체, 생리적으로는 어리고 미숙하여 의존성을 탈피할 수 없으나 사회경제적으로는 이미 의존적 지점을 벗어나 자립선상에 위치하게 되는 반 자립적 시기로 간주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대사회에 들어와서는 중등교육이 끝나는 10대 후반까지 성인의 세계와 격리된 채 대부분의 사회적 역할, 책임을 유예시키고 아동기와 별다를 바 없는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시기로 adolescence 시기가 규정되면서, 반 자립적 youth 시기는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다.

이제 정보화, 세계화등 급격히 변화하는 후기 산업사회 속에서 점차 조속해져가는 청소년들을 여전히 무기력한 의존적 존재로 간주하기 보다는 자율적 능력과 기회를 확산시켜서 좀 더 자립적 존재로 자리매김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청소년 인권을 보장해준다 함은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것인가? 아니면 청소년에게 스스로 필요한 것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가?

Walker, Brooks & Wrightman(1999)²⁾은 청소년 인권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을 양육관점(nurturance orientation)과 자기결정관점(self-determination orientation)으로 대별하여 설명하고 있다. 양육관점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부권주의적(paternalistic) 입장을 기본으로 하여, 미숙하고 능력과 힘이 부족한 청소년의 권리를 성인과 사회가 보호해 주어야 함을 강조하는 반면, 자기결정 관점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삶에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차적 관심을 두고 청소년 스스로 자신과 관련된 문제와 상황에서 선택과 의사결정을 하고, 자율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를 함축적으로 비교해보면 양육관점이 청소년들에게 그들을 위해 좋은 것을 주려는 것(giving children what's good for them)

2) Walker N. E., Brooks C. M. & Rightman L. S. (1999). Children's Rights in the United States. London: SAGE Publications

이라면 자기결정관점은 청소년들에게 그들을 위해 좋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giving children the right to decide what's good for themselves)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양육관점이 청소년을 보호(protecting children)하려는 관점이라면, 자기결정관점은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protecting children's right)하려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이전 전통사회에서 청소년은 단지 부모의 소유물 정도로 간주되어 왔던데 반해, 근대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옹호 사상이 증대되어 오면서, 청소년들은 주로 보호와 양육의 관점에서 그 권리가 확장되어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청소년 권리의 논의는 점차 양육과 보호로부터 불간섭과 자율의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보호권과 복지권 못지않게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 이는 청소년에 대한 지나친 양육과 보호중심의 논리는 자칫 청소년의 자율적 선택과 자기결정의 기회를 박탈하고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선거권, 두발자유권, 성적자기결정권 등 근래에 제기되는 청소년 인권 주장들은 그동안 양육관점에 치우쳤던 입장에서 탈피해서 자기결정관점의 확산을 통해 대립되는 관점 및 권리 사이의 적절한 조정과 균형을 맞추어 사회 내 청소년들의 보다 자율적 존재로서의 자리매김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3) 아동의 인권과 청소년의 인권은 어떻게 다른가?

이미 충분히 능력을 갖춘 집단을 무능력한 집단으로 간주하여 함부로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아직 미숙하고 나약해서 적절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집단에게 어른 취급을 하여 방치한다면 두 집단 모두 심각한 권리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아동 및 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관한 관점의 정립되고 그에 따른 권리의 구분이 필요해 진다.

청소년을 범주화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은 역시 연령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연령 기준은 나라마다, 또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고

3) 최윤진(2000), '아동의 권리와 청소년의 권리',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 연구 7권 2호

있다. 비록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아동의 범주를 18세까지 상향해 놓음으로써 현실 적용 시 청소년의 연령 범주를 모호하게 한 결과를 초래하였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범주를 14세 이하의 아동(children) 집단과 15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youth) 집단으로 구분해서 관련 정책을 펼쳐왔다. 예컨대 1985년 유엔의 '청소년의 해' 지정에 즈음해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렸던 청소년 관계 법률회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청소년(young people)은 "15세~24세 사이의 집단으로 아동(child)이나 성인(adult)과는 구별되는 젊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히 아동은 14세 이하의 연령집단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U나 유럽평의회 등 유럽의 국제기구들에서도 청소년 연령범주를 15세에서 24세, 혹은 25세까지로 설정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아동과는 달리, 청소년에게는 사회의 발전과 평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사회 참여권, 자기 결정권등 성인과 동등한 수준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관련 UN 규범의 주요 목적이 '생존, 보호, 발달'인 반면에 청소년 관련 규범의 주요목적이 '참여, 발전, 평화'인 점을 통해서 잘 비교되어지고 있다.

의존기인 아동기와 반의존기인 청소년기 사이에는 서로 다른 사회적 당면 문제와 요구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위해요인에 취약한 아동들에게 국내외의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폐해, 노동착취, 성적학대와 착취, 영양실조와 사망률의 증가 등의 문제로 인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컸으며, 이러한 위해요인으로부터의 보호가 일차적인 요구로 부각된다. 반면에 아동에 비해 더 성숙하고 사회적 자립시기에 더 다가서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아동과 유사한 사회적 보호가 여전히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자립을 위한 성공적 전이과정의 수행에 필요한 취업기회 및 근로여건의 확보, 직업훈련, 준비과정의 확보, 가정 내 부모로부터 과도한 통제와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과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의 확보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노동시장에서의 청소년 실업의 증가, 열악한 근로환경, 또 가족구조 및 관계변화에 따른 부모세대와의 세대갈등의 증가 등이 오늘날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능력과 성숙정도의 차이와 각 집단이 당면한 사회적문제와 요구의 차이에 기초해서 아동의 권리와 청소년권리의 성격을 비

교해보면 청소년은 아동에 비해 성인권(adult right)이나 부모에 대응되는 권리(rights against parents)가 더 많이 요구되고 있고, 청소년의 자립요구 충족과 현실적 권리구현요구의 충족을 위해 의사표명권(representational rights)이나 권능부여권(enabling rights)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호권이나 복지권 영역에 있어서도 아동의 기본적 생존요구 및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요구 등과는 별도로 청소년의 자립능력함양 및 자립요구충족을 위한 복지적, 보호적 차원 권리내용이 포함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내용을 살펴볼 때, 미성년자로 통칭되었던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여, 그 성숙과 능력정도, 그리고 두 시기의 요구의 차이점을 기초로 각 권리영역의 중요성과 필수성에 대한 경중을 해야 할 것이다. 양육과 보호의 권리는 아동에게, 그리고 자기결정 및 참여의 권리는 청소년에게 좀 더 많은 무게를 실어서 적용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 두 집단 모두 부당한 권리침해와 제한이 없는 권리 주체 집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권리의 논의는 점차 '보호와 간섭'으로부터 '불간섭과 자율'의 방향으로, 보호 및 복지권 중심 논의로부터 자유권, 자기결정권 및 참여권 중심의 논의로 되어간다.

그런데 근래의 우리 현실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능력이 부족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논리가 통용되고 있고 사회변화에 따라 조속해져 가는 청소년 모습을 간과한 채 청소년들을 아동과 동일시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율과 참여의 폭을 넓히고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사회 변화의 추이와 그에 따라 변화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시대에 적합한 청소년들의 사회 내 자리매김을 정하는 일이 청소년 인권의 성격과 내용을 정하기 위한 기본 과제가 됨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청소년을 무한한 잠재가능성을 지닌 인적 자원이며 권리 주체로 인정하여 주어서 자신의 삶과 관련된 사안에 주체적 자기 결정의 기회를 확대해 주도록 하고 사회적으로는 미래 사회를 함께 설계 할 파트너로 간주하여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참여운동의 방향

그동안 청소년들의 참여는 정부나 기성 단체의 주도 아래 짜여진 구조에 청소년을 편입시키는 명목적 참여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청소년 집단의 참여를 제한하여 참여의 불평등 현상을 야기시키고, 다른 한편 청소년 삶과 관련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실제 사회변화에 접목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해왔다고 볼 수 있다.

몇몇 구체적 양상을 제시해 보면, 간혹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관계된 정부 정책에 참여 할 경우라도 주로 의견 개선의 수준에 머물고 있고, 그것도 대부분 feedback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개선에만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아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게 되고, 정책의 집행이나 평가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때로는 정부 권력에 흡수·포섭됨으로써 참여의 의의를 상실하고 허구화되거나 행정기관에 의해 조작될 위험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즉 행정기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청소년 참여가 이용되는 역기능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청소년의 의견을 담아내는 통로도 미흡한 실정이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참여의 확대와 재분배 보다 편중이 심화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초래되기도 한다. 광범위한 청소년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수의 관심 있는 청소년만 참여하여 참여의 엘리트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전체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대의)적 기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의 청소년 참여 운동은 새로운 참여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몇 가지 전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성적 참여방식에서 심미적, 감성적 참여방식으로의 변화

Lasse Siurala(2002)⁴⁾는 근대 사회의 효율적인 노동 분할과 이성적인 조직을 기반

4) Lasse Siurala (2002). Can Youth make a difference? straslo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으로 한 대규모화된 사회에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예측 가능한 변화에 걸 맞는 이성적 담론에 근거한 사회 운동 방식이 호응을 받아왔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 불안정한 사회 속에 신부족주의적 라이프 스타일의 삶이 만연되고 특히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분명한 채 현재적 삶에서 부단히 자신을 표현하며 실험적 정체성 탐색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느낌, 감정, 심미적 표현 등의 공유를 통한 문화적, 감정적 공동체의 형성과 참여 양상이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참여방식은 오늘날 젊은이들의 시위 현장에서도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 해학과 풍자로 구성된 다양한 패러디, 게임, 문화제 등으로 저항과 사회비판의 표현을 쏟아내고 있는 최근의 양상은 과거 격렬한 몸짓과 선동적 연설들로 점철된 시위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정부나 청소년 단체 등이 주도하여 소수의 청소년 대표자의 제한된 이슈에 국한된 참여 방식은 제한된 기성 구조에 청소년들이 편승하여 맞추어 간 참여구조였다면, 최근의 참여 양상은 다양한 청소년 집단의 요구에 따라 구조 자체가 바뀌고 다양화 되어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미 마련된 장으로의 편입과 참여가 아니라 스스로 다각적인 참여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체성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과정으로서의 참여가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앞으로의 청소년 참여담론은 기존의 이성적인 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성적이고 심미적인 담론에 근거해 새로운 참여 방식의 창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UCC 등의 매체를 통한 참여나 작품 활동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VJ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과 관점을 표현하고 느낌과 감정을 표출하여 집단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자율적 참여 방식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참여권의 확대는 투표권 행사 등의 정치 영역 중심의 사회 참여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의 참여 체험이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들의 문화적 취향과 감수성 등에 걸 맞는 예술, 스포츠 분야 등 문화 활동 및 정책에 청소년들의 자발적이며 주도적으로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디지털 민주주의와 온라인 행동주의의 실현

최첨단 정보화 사회로 나가고 있는 지금, 멀티미디어의 발전과 다양한 통신망 구축 등으로 청소년들의 의사소통수단도 이제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수많은 통신 동호회방, 게시판, 대화실, 토론실 등에서 자신의 일상생활 문제부터 교육개혁, 입시 위주 교육문제, 경제문제, 청소년의 인권문제 등 전 분야의 사회현상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 참여해 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확장은 청소년 참여에 있어서 디지털 민주주의(digital democracy)와 온라인 행동주의(online activism) 양상의 확산 가능성을 넓혀주고 있다.

디지털 민주주의란 새로운 정보기술(NIT)을 기초로 경직된 구조에서 탈피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와 문화의 속도에 맞추어 효율적인 정보의 흐름을 통한 민주주의를 말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여 하향적 일방적 의사결정이 아닌 쌍방향적 평등한 의사결정 참여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영인(2014)⁵⁾은 기존 대의민주주의가 대표자와 시민간의 괴리, 의회의 대의 기능의 형식화, 선거의 승자 독식과 소수자 대표의 미흡, 정치적 무관심 조장으로 인한 많은 문제를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 공공문제에 대한 토론과 심의 기능 소홀, 소속 정당의 방침에 따른 거수기 역할만 하는 관객 민주주의(spectator democracy) 전략될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며,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의 활용을 통해 참여와 토론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복원시킬 수 있고 정보획득과 공유를 용이하게 하여 공론의 장을 펼치고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사이버상의 적극적인 청소년 참여는 이러한 디지털 민주주의의 경험과 실현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 행동주의란 온라인상에서의 정보 교류나 의사 표현이 좀 더 조직적 행동으로 활성화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동안 온라인상의 활동은 즉각적인 피드백의 한계와 비일관성 등으로 인해 조직화의 어려움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시민적 행동과 연대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며 점차 이것이 조직화와 행동화로 이어져 그동안 다양한 사회 운동을 가능케

5) 김영인, 최윤진, 구정화 (2014). 청소년인권과 참여, 서울: KNOU PRESS

한 바 있다. 예를 들자면 2002년 효순 미선 장갑차 압살 사건 시 인터넷을 통한 글의 확산을 통해 광화문에서 10만명이 모인 촛불 집회가 실시되었고 이것이 다시 온라인상에 소개되며 촛불집회의 확대와 지속이 가능했었다. 또한 2008년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시에는 ‘촛불소녀’라 불린 당시 중고생이 사이버 공간에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이슈를 제기한 것이 오프라인의 촛불문화제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사이버 공간을 통해 확산되면서 선순환적인 상승작용을 일으켜 조직적인 행동화 양상을 보여준 바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이 참여권을 행사하고 보장 받아야 할 공간 중에는 실제 공간 못지않게 사이버 공간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참여권 행사와 체험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복합 정체성 경험을 통한 자아의 발견, 다양한 인간관계 경험, 문제 해결 경험 등의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키워 나갈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관심, 의견 개진과 토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등을 통해서 디지털 민주주의의 체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의 참여의 선순환적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실질적인 사회변화의 실천이 가능한 온라인 행동주의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3) ‘준비참여’로부터 ‘지금참여’로의 변화

미국 사회에서 청소년 및 청년세대들의 사회적 무관심과 투표율 저조와 정당 및 사회단체에의 불참여등 비정치적 행태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했던 1990년대의 상황에서 이러한 젊은이들의 사회적 무관심과 비참여의 원인에 대한 새로운 진단과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즉 기존에는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가 부족한 원인은 청소년들이 아직 충분한 시민성을 갖추지 못하고 유능한 시민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등 참여에 필요한 능력이 미흡한 데 있다고 보고, 그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봉사학습 등 구조화된 참여 경험들을 제공함으로써, 장차 성인이 되어 수행할 실제 참여를 대비한 교육과 훈련에 역점을 두어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시민성이나 시민 역량의 부족은 개인 능력의 결핍과 같은 개인적 요소에 기인한다고 간주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정치사회적 무관심과 비

참여로 인한 사회문제에 봉착하면서, 청소년 참여의 문제는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것이기 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문제에 그 원인이 있음을 관련 학자들이 자각하기 시작했다.

Watts & Flanagan(2007)⁶⁾은 기성 주류사회로의 막힌 접근(blocked access)구조가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임을 지적한 바 있다. 즉 청소년들은 실제 사회 문화 정치적 사회구조, 규범, 제도와 격리된 채, 일반 성인들이 수행하는 시민적(civic), 정치적(political), 공공적(public)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기회가 허용되지 않고 차단된 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실제 적극적 사회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들을 결핍상태의 수동적 존재로 간주하여, 훈련과 교육을 통한 개인적 결핍요소들을 채우는 데에만 주력하고, 생생한 삶의 참여와 경험으로부터 격리시킨 채 장차 실제참여를 위한 준비참여에만 가담시켜 온 것이 사회적 냉담과 무관심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Roholt(2013)⁷⁾는 이런 점에서 청소년 참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함을 주장하며 그동안의 engagement와 새롭게 추진해야 할 engaging이 어떻게 다른지 다음 <표1>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표1>

질문	준비참여(Engagement)	지금참여(Engaging)
청소년은 누구인가?	- 미래 시민 - 아직 시민이 채 안된 존재 - 발달단계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 존재	- 시민적 행동자(Civic actors) -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 - 현재 시민 - 공공사업가(Public workers)
왜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가?	- 청소년의 무관심, 무흥미, 교육받지 못함 - 적절한 시민 지식 기술, 태도가 부족	- 청소년은 현존 구조에 연결되지 못하고 격리됨

6) Watts R. J., & Flanagan C. A. (2007). Pushing the Envelope on Youth Civic Engagements a Developmental and Liberation Psychology Perspective, 35(6), 779-792.

7) Roholt R., Baizerman M. & Hildreth R. (2013). Civic Youth Work. Chicago: Lyceum Book Inc.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훈련과 교육 : 시민성 함양을 위한 경험 확대	민주주의 경험기회 제공, 민주 시민으로 살아갈 기회 제공
어떻게 해야 하나?	청소년이 보여주는 성과에 초점	지역사회, 프로그램, 이슈에서의 민주적 과정과 실질적 변화에 초점

필자는 'engagement' 와 'engaging' 의 개념을 각각 '준비 참여'와 '지금 참여'라고 명명하고자 하며 앞으로 청소년 참여는 '준비 참여'에서 더 나아가 '지금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을 미래 시민으로 간주하여 구조화된 모형 사회에서 참여 연습을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그들의 삶의 현장 곳곳의 일상에서 지금 매일매일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삶의 과정이 참여로 점철되고 참여를 통해 문제의 해결과 삶의 발전을 경험할 때라야 시민적(civic), 정치적(political), 그리고 공공적(public) 관심과 역량이 발전되고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4) '따로 참여'로부터 '함께 창조'로의 변화

그동안 청소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청소년 참여 증진을 위한 노력이 있어왔으나 대부분 성인 지도자 주도의 프로그램이나 계획아래 청소년들이 부분적으로 참여 기회를 갖는다는지, 아니면 설혹 청소년들이 주도한 참여활동의 면모를 갖추고 수행될 때라도 지도자들의 촉진적, 조력적 역할을 전제하며 전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사회참여활동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과 청소년들의 역할이 고정적으로 구분되어 각기 '따로 참여'의 양상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활동이 단순히 '참여 연습'에 그치지 않고, 오늘의 주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 가는 삶의 과정으로서의 실질적 참여가 되려면, 그들이 단지 기성 사회 양상을 보고 배우고 느끼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그들이 속한 공동체 문제의 인식부터 해결 및 개선과정을 거쳐 사회 변화의 성취 경험까지 기성세대와 마찬가지로 주체적으로 다양한 역할 수행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현장에서 앞으로의 참여 운동은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함께 창조'해 가는 과정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민적, 공공적 사안들을 평등한 입장에서 같이 고민

하고 공유하며 좀 더 나은 사회변화를 같이 창출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도자와 청소년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안과 상황에 따라 상호간의 역할 전이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spaces)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전에 계획되고 짜여진 틀에 따른 참여활동 뿐만이 아니라 상호 협의와 조정을 통해 유연적, 즉시적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활동 방향과 전략들이 활발히 개진되고 창조될 수 있는 탄력적인 활동의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학습자로서 참여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의 발굴자, 프로젝트의 개발자, 문제해결을 위한 디지털 기술개발 및 교육담당자 등의 역할 전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 때로는 청소년이 위원장이며 지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공 정책 위원회나 자문모임의 구성도 상상해 볼 수 있고, 또한 현장에서 진행된 청소년 사업에 대한 평가 지표 및 도구 개발 등 평가의 전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함으로써, 평가 대상자에서 평가자로서의 역할 전이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참여의 경험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과 동네, 지역사회 단위의 생활 과정에서부터 활발히 전개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소규모 지역단위의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서, 지역 사회 운용 과정에 성인들과 대등한 자격과 지위를 갖추고 적극 참여하고 지역 사회 변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인과 청소년의 공동 작업 및 협동 경영의 모델들을 구축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점차 큰 단위의 사회 국가 등 전체 사회에서의 청소년들이 시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청소년 사회 참여의 의미가 단순히 기성세대 중심의 사회 운용 과정에 청소년 들이 일부 관심을 갖는 다든지 성인의 요구와 허용 범위 내에서의 수동적이고 소극적 참여 수준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성세대와 대등하게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미래를 위해 오늘을 참아내게 하기 보다는 현재의 인권과 참여기회를 보장해 줌으로써, 미래 중심의 'becoming'의 존재로서만이 아닌 오늘의 시민다운 'being'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gain,

자발적 의식화' 를 거치는 청소년 운동,
그들의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

Youth

김민
(순천향대학 교수)

Movement

‘자발적 의식화’를 거치는 청소년 운동, 그들의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

김 민(순천향대학 교수)

I. 들어가며

“애국의 함성으로, 대동의 깃발을 들고, 4월의 몸짓으로 총 진군하라, 민주 연세여! 투쟁! 투쟁! 해방 00대는 우리의 문화를 소비 향락적·퇴폐적 문화로 전락케 하는 미 제국주의를 타파하고, 조국의 운명을 걸머쥐고 가야 할 이 땅 청년학도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구국투쟁의 전선으로 일어서게 하고자 한다!” (80년대 연세대 대자보에서).

“정치관은 난장, 최순실이 대장, 박근혜는 그저 실장, 이 상황은 막장, 정유라는 된장...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 그들의 꼬장” (2016.10.31. 원광고 대자보에서).

여러분은 어떠신지? 80년대를 가로지르며 대학생활을 했던 필자로서는 전자의 대자보 문구가 익숙하다. 그럼에도 최근 랩 라임(rhyme)까지 갖춘 고등학생의 대자보 문구는 신선하다못해 상쾌하다. 국격이 날로 저물어가는 오늘날, 세상은 뒤숭숭하고 어둡기까지 하다. 미세먼지만의 탓은 아닌 터. 지난 두 달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시민들로 하여금 집단 우울증을 겪게 만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젊은이들은 잘도 비튼다. 최근엔 SNS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공주전’ (참고: 부록)은 참담한 심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던 시민들을 시원하게 달랬다.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블랙유머가 그리는 서글픈 웃음이 아닌, 찰리 채플린 류의 데자뷰를 아이들은 선사했다. 그나마 이런 비틀린 유머나마 있어 세상엔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을 후 세대(next generation)가 띄운다.

그랬다. 시국선언은 대학생, 청년의 몫이었다, 언제나. 1960년대 4월 혁명 이후 70년대와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 학생운동의 전초기지는 학원가, 대학 캠퍼스였음을 누구도 부인하긴 어렵다. 전태일 열사의 희생을 발판으로 위장 취업과 노동야학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노동운동이 시작됐건만 그 역시 대학으로부터 연유

됐음을 알 만한 사람은 안다. 그들에게 시민의 삶이란 끊임없는 변증법의 역사, 그 순환의 꼭지에서 새롭게 피 올리는 마중물이어야 함을 서로에게 각인시키며 그들은 그 시대를 살아왔다. 하지만 당시 글과 말은 현란해도 분위기는 잿빛이었다. “따뜻한 봄날 오후에도, 대기는 여전히 날카롭고 먼지가 날리는 회색거리와 아스팔트는 늘 건조했다.” 하지만 요즘은 다르다. 시국선언의 연령이 하향화되고 이들의 거리 참여가 가족을 동반하면서 - 이 역시 큰 변화다. 과거엔 시위주동자를 둔 아들딸을 부모가 어떻게 대했는가? 지금은 모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견스러워하거나 오히려 이런 상황을 부끄러워하는 성인세대가 늘어났다 - 거리의 시위는 문화제로 쉽게 전치된다. 하긴 거리를 문화의 터전으로 바꾼 것은 단연 2002년 월드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엔 여전히 단단한 인식의 외피가 있다. 쉽게 깨지지 않는 이 인식의 껍질은 바로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사실 근대사회 체제에서 연유하는 청소년관(觀)의 개념 변화는 자끄 데리다가 언급했듯 끊임없는 ‘차연의 결과’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인식의 껍질은 예상보다 단단하다. 결코 고착될 수 없는, 그리고 고착되어서도 안 되는 이 개념을 강경하게 하나의 개념으로 고정시키려 한다. 이른바 ‘미성숙한 존재’와 ‘근대적 학교교육’에 포섭되는 학생이란 개념을 청소년이란 개념 위에 씌우려고 한다. 어떤 개념도 그러하듯, 그때그때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개념은 동태적으로 변화하면서 일상의 ‘의식’과 ‘무의식’으로 체화된다. 청소년이란 개념도 마찬가지다. 일찍이 청소년문제 현상에 대한 논의에 있어 ‘학생 대 청소년’이란 이분법적 청소년 관구도 하에 그 해법에 대한 논의가 주조를 이룬바 있다(참고 : 조혜정, 1999; 김민, 2000; 조용환, 2000). 즉 청소년세대를 이르는 지금까지의 일상과 현실은 대체로 학업청소년 곧 ‘학생’이었음을 지적하고, 이제는 이들을 새롭게 보자는 의견이 나뉘어 왔다.

사실, 청소년 인구집단을 지칭하는 학생이란 개념은 학령기의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현장에 편입되면서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기대하는 전통적인 역할기대를 부가하는 ‘명칭’이었다. 조용환(1993)과 김민(1998)은 학생이란 개념을 통해 청소년과의 유리된 사회적 가치를 지적한 바 있는데 즉, 우리 사회가 성장세대에게 부가한 학생이란 개념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유보하는 삶의 존재로서 그 삶의 정체성을 미래에 담보하는 개념이고, 반면에 청소년이란 개념은 문화적 주체자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본래부터 인정해야 하는 능동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으로서의 청소년’은 미래를 위한 그들의 현재적 삶을 보호와 관리의 대상으로 폄하시켜, 결국 그들만의 독자성을 현실로부터 인정받기란 용이하지 않다고 논의하였다. 마침 이런 논의와는 별개로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부가한 ‘학생’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변화의 움직임도 있어왔다. 특히 청소년을 바라보는 일상의 그것

과 뚜렷한 사회변화의 흐름 간에 보이는 괴리는 점차 그 격차를 보이면서 표면적인 사회갈등 요소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불안의 요인들은 곧 수업붕괴, 교실붕괴, 학교붕괴와 같은 공교육의 위기담론으로 현실화되었고(김민, 2000; 이종각, 2000), 이후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조혜정, 1996; 연세대청년문화센터, 1999; 탈학교모임 친구들, 1999), 홈스쿨링(home schooling), 대안학교, 자율적 학습네트워크 축조, 탈학교론의 등장(이한, 1998)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어 청소년 인구집단의 주목할 만한 일련의 운동들 즉,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의 ‘No Cut 운동’, ‘탈학교연대를 위한 모임’의 ‘탈학교운동’과 ‘교육통화운동’, ‘한국청년연합회’의 ‘좋은친구만들기운동’, 한국YMCA의 ‘평화지기운동’ 등이 함의하는 의미들은 이제 더 이상 근대적 청소년 관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청소년 인구집단의 명정한 변화사레이자 현상들로 상징되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점은 근대이후 학생이란 개념으로부터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청소년 관의 고착된 자세와 입장으로 인해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변화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청소년의 의식과 문화에 대한 몰이해는 변화에 대한 이론의 천착과 현장에 대한 밀착된 관찰·보고가 미비한 실정에서 애초부터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근대 이후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인구집단을 바라보는 청소년 관(觀)의 변화흐름을 ‘청소년운동’을 중심으로 조명하기 위해 시도되어졌다. 특히 청소년 관 및 청소년인구집단의 변화흐름을 청소년운동이란 프리즘으로 분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금까지 제대로 시도하지 않은 접근이다. 비교적 최근에 이르기까지 논의되었던 선행연구들(조찬석, 1973, 1976, 1978; 김정희, 1978, 1999; 신재홍, 1983; 이정국, 1988; 김현철, 1999)이 보였던(청)소년운동에 대한 접근은 통사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근대’라는 시기로 단절하여 당대의 소년운동이 갖는 의미와 특성에 대한 탐색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⁸⁾ 즉, 해방이후 청소년운동의 역사적 연대기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4. 19 혁명’, ‘한·일회담반대운동’ 등을 근대 소년운동과 연결짓지 못하는 단속성(斷續性)을 보이고 있고, 더욱이 현대 청소년운동이라 할 수 있는 80년대 중반 이후, 좀 더 구체적으로 87년 6월 ‘서울지역고등학생연합’, 88년 ‘보충수업, 자율학습 폐지운동’, 다시 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결성과 이어진 대량해직 사태이후 고등학생

8) 아직까지 한국사회에 있어 근대와 현대에 대한 시기구분이 모호하지만 연구자들에 따라 현대소년운동사를 정리한 선행연구자들도 있다. 김정희(1989), 이재철(1998) 같은 사람들은 1981년 혹은 1975년 이후의 소년운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이론적 관심 역시 1980년대 중반 이후 청소년운동에 대해서는 비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합운동(부산지역고등학생연합, 광주지역고등학생협의회 등) 등 일련의 맥락 속에서 청소년변화의 흐름을 함께 파악·진단하고자 하는 시도는 사실 상 전무하다시피 했다. 그 결과 최근의 청소년운동과의 맥락 짓기를 통한 통사적 연구관심은 선행연구물에서 발견하기 어렵고, 아울러 청소년 관의 변화흐름과 연결 지어 파악하고자 하는 선행연구들 역시 전무한 편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당대의 소년운동이나 청소년운동의 의미를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보되 최근 청소년운동까지의 통사적 접근은 살펴보지 못하였고, 또 사회문화적 견지에서 청소년관의 흐름과 함께 연결 짓는 작업을 간과해 온 것이다. 그것은 연구관심 자체가 근대의 소년운동에 머물렀거나, 혹은 소년운동 자체의 의미와 특성을 구분하고 살펴보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면면히 흘러온 일련의 (청)소년운동들은 당시대의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응축된 결과로써 그 시대의 청소년 관을 바라보는데 있어 유효한 논의들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 흐름을 보여주는 지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역사적 맥락에서 동태적으로 파악되는 사회변화의 하나라면, 그들의 생활과 의식에 대한 '시공간적 범주에 기초한 연구관심'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 생활과 의식이 일상적 상례에서 벗어나 비일상적 사건으로 돌출되는 상황은 일정기간 일상의 변화가 함축되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소년운동 혹은 청소년운동이 바로 성장세대의 일상의 변화를 농축시킨 비일상적 사건으로 전제하고, 근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생활과 의식의 전반적 변화흐름을 파악하며, 동시에 그 동안 우리 사회가 합의해 왔던 청소년 관에 대한 진단까지 감행하는 이론적 시도이자 논의이다.

이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 이후 소년운동 혹은 청소년운동의 흐름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각 시기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청소년 관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지금의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들을 각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둘째, 한국 근현대사를 일맥 관통하는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변화흐름을 파악·진단하고, 주요 변화의 흐름을 현대적 의미에서 재해석하였다.

셋째, 최근 청소년운동의 흐름과 변화가 갖는 의미를 살펴본 후 오늘날 변화된 청소년 인구집단의 의식과 문화의 흐름을 진단하여 이에 따른 대응방안의 구안과 제시를 하고자 한다.

이 글은 문헌연구를 통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1차 자료로는 당시 청소년운동을 보도한 신문, 잡지, 자료집을 기초로 하였으며, 2차 자료로는 소년 및 청소년운동에 대한 각종 선행연구물들을 참조하였다. 특히 현대 청소년운동을 이해하기 위한 보충자료로서 UN과 UNESCO 등 국제기구 청소년관련 보고서 및 각종 선언, 규약, 권고문 등을 참조하였으며, 한국적 상황에서는 청소년정책이 주요 국가

정책으로 채택된 1985년 이후 청소년관련 법규 및 정책보고서, 청소년현장 등을 참조하였다. 하지만 시간상의 제한으로 충분한 자료를 참조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다. 이는 추후에 보완할 것을 약속한다.

한편, 이 글은 시기상으로 2000년대의 주목할 만한 청소년운동 현상 모두를 포괄하지 못한다. 2002년 6월13일 의정부 조양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14살 신효순, 심미선 양이 의정부 주둔 미군2사단 44공병대 소속 부교관반용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사건 이후 청소년의 폭발적인 분노가 일어나 1차, 2차 '청소년 행동의 날'로 표출된 이래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이른바 소파협정에 대한 국민적 저항, 동년에 개최된 월드컵 당시 참여세대(P세대, Participation, Passion, Potential power)에 대한 언급과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 선거권 연령 19세 하향화를 위한 운동도 이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다. 사실 선거권 연령 하향화는 논의할 얘기가 많다. 여전히 18세 연령 하향화를 부르짖는가 하면, 선거권만큼 중요한 것이 피선거권이란 점을 들어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같이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필자는 이런 주장을 꾸준히 한 바 있다). 아울러 현행 19세에서 세대 간 균형을 위해 16세까지 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다소 급진적인 주장도 있다. 실제로 2008년, 유럽국가 중 처음으로 최연소 유권자가 등장한 오스트리아는 당시 18세였던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춘 이유가 세대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2014년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을 묻는 주민투표도 16세와 17세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했는데, 의외로 한국사회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대표적인 청소년운동이라 한다면, 2008년 광주병 촛불시위에서 보여준 청소년들의 시위, 2013년 고려대 캠퍼스에서 시작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운동,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청소년을 중심으로 시작된 추모활동과 사건진위를 밝히려는 청소년운동, 그리고 최근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이은 광화문 촛불시위에서 보여준 청소년들의 운동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글로 완성될 예정이다.

II. 청소년 개념과 운동의 변천사

1. 소년·아동·학생·청소년

인간의 발달단계를 구분하는데 있어 청소년의 개념은 다중적이다. 일단 청소년이란 용어 자체가 소년과 청년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으로 인해 때로는 아동과

청년의 시기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중고등 학생 연령을 의미하는 인구집단으로 제한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청소년이란 용어 자체는 현대에 들어와 정립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역으로 말하자면 현대 이전, 근대기에는 청소년의 개념이 거의 사용되어지지 않았고, 대신 소년⁹⁾, 아동, 학생이란 용어가 통용되어졌다. 특히 근대기의 소년이란 개념은 지금의 아동과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나이가 좀 있는 아해', 곧 오늘날의 청소년개념과 유사한 편이다.

1) 少年

실제로 조찬석(1976), 이정국(1988)의 연구,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1974)의 자료에 의하면, 일제시기를 포함하는 근대의 '소년'은 15세 전후뿐만 아니라 20세 전후의 연령까지도 포괄한 용어였다. 당시 소년운동을 주도하던 인물중심으로 접근되어진 위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六堂 崔南善의 소년은 수염난 아이, 아이 어른을 포함하는 개념이었으며 주로 15세 전후의 연령을 포함하고 있고¹⁰⁾, 春園 李光洙 역시 소년을 15세 전후의 고등학생 또는 20세 내외의 전문학생의 연령 집단으로 칭하고 있었다¹¹⁾. 또 근대 소년운동에 있어 주요 인물로 연구되어지는 小春 金起田 역시 소년이란 용어를 '이 십 세 이하의 사람'으로 칭하고 있는데 초기에 그는 소년이란 말보다는 '幼年'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가 나중에 소년이란 말로 지칭하고 있었다¹²⁾. 한편, 한국 근대 소년운동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小派 方定煥은 주로 어린애, 어린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는데 그 주된 연령은 다른 인물들에 비해 낮은 연령층(5-6세)을 지칭하였다¹³⁾. 그 이유로는 다

9) 본 연구에서 소년운동과 청소년운동을 혼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근대에는 소년이란 용어가 보편적으로 상용되었으므로 당시의 청소년운동은 통상 소년운동으로 표기되어졌고 또 사용되어졌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 청소년이란 개념이 자리 잡으면서 최근에는 청소년운동이란 용어가 활용되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10) 崔南善은 「少年」지에 실은 그의 글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어린이는 어대까지던지 어린이 다울지어다. 더욱 소년은 어대까지던지 소년다울지어다"(참고 : 少年, 2년 10권, 1909. 10. p. 15). 이 글에 따르면 최남선은 소년과 어린이를 구분하고 있고 어린이에 비해 소년을 한층 나이 많은 쪽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1) 李光洙는 「開關」지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소년 여러분! 지금 二十歲 內外외시는 여러 아오님들과 누의들이어"(참고 : 개벽, 제 17호, 1921. 11. p. 25). 이광수는 최남선에 비해 오히려 20세의 연령집단도 소년의 개념에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金起田은 「開關」지에 "幼年이라 함은 成年의 대칭이라 見할지며, 成年이라 함은 更히 成人이라 解할 것이다"(참고 : 開關, 제 2호, 1920. 7, p. 53)라고 글을 썼다. 그는 특히 천도교에서 소년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면서 후에 천도교소년회를 발흥시킨 인물이다. 당시 천도교소년회의 가입 연령범위는 7세~16세이었다.

13) 어린이란 용어를 확산시킨 방정환은 소년이란 용어보다는 어린이란 용어를 자주 사용하

른 인물들에 비해 지금의 아동을 의미하는 저연령층의 청소년인구집단 즉, 어린이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진 그만의 사상적 배경에 연유한다. 또 일제시기 소년운동의 한 축을 담지하였던 조선소년군(한국보이스카우트의 前身)도 그 가입 및 활동 연령의 범위를 8세에서 20세까지 하여 당시 소년이란 용어가 20세 이내의 인구집단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근대시기의 소년은 연령상에 있어 지금의 청소년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지금의 소년이 초등학생 연령의 아동을 의미하는 제한된 의미의 용어라면 그 시기의 소년은 유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보다 넓은 범주의 인구집단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졌다. 그래서 일제시기에는 경우에 따라 소년의 개념은 상하로 확대되어져, 兒童·아해·幼年·어린애·어린이·아이·모던 뽀이·어린 동모·어린 사람 등의 호칭이나 혹은 청년, 成人 前人 등으로 거의 구분 없이 사용되어졌다.

그러다가 소년의 개념에서 지금의 아동개념 - 어린이 - 이 분리되기 시작한 것은 3.1운동 이후 일제의 문화정책에 반발하는 각 계 민족운동이 발흥하면서 소파 방정환에 의해 어린이운동이 널리 확산되고 난 후부터였다. 그 기점을 분명하게 밝히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정국(1988: 8)의 연구에 따르면 1922년 어린이의 날 및 1923년의 어린이지 발간에 즈음해 소년과 어린이란 용어가 서로 구분되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어린이라는 말이 오늘날의 용법과 연령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이어서 소년이라는 개념이 지금의 청소년이란 개념과 거의 유사하게 적용되고 상용되어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렇게 어린이보다 넓게 사용되어진 '소년'은 해방이후 근대적 학교교육체계의 확산과 더불어 그 적용대상이 점차 '국민학교 학생' 즉, 과거보다는 저연령 상의 학령기 인구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그 범주가 제한되어지기 시작했다. 근대시기 어린이와 분리해 지칭되어진 소년이란 용어가 이제는 역으로 어린이를 의미하는 용어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과거 '소년'이 그러했듯 '아동'이란 용어가 지금의 청소년 연령대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2) 兒童

지금도 청소년이란 개념과 일정정도 연령대에 따른 중복이 있는 아동은 그때가

였다. 그가 「天道教會月報」에 쓴 글에는 "나는 어린애를 貴愛한다. 그 중에서도 처음 말배운 五六 齡 썸 되는 어린애를 제일 귀애한다"고 하여(참고 : 천도교회 월보, 126호, 1921. 2. p. 98) 당시 소파의 어린이가 저연령 인구집단을 지칭하는 용어임을 추정케 하고 있다.

지만 해도 구체적인 연령대를 의미하는 용어는 아니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 들어 청소년이란 용어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당시, 소년이 저 연령 학령인구집단을 의미하는 제한된 용어로 자리 잡으면서, 그 자리를 아동이란 용어가 대신하였다. 이를테면 196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1974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아동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는 법리적 해석은 당시 아동의 연령대를 어느 정도까지 잡고 있는가에 대해 나타내주는 유효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사실 이 연령대는 지금까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지금의 청소년을 중고등학생으로 제한하고 통상적으로 지칭하도록 하게 한 계기였다.

소년이란 개념에서 아동의 개념으로 이동하는 이 시기는 한국사회에 있어 근대 교육체제가 구축·완비되어지는 시점과 맞물리고 있다. 당시 문교통계연감(1960-1969)에서 보이는 학령인구의 증가는 전년도 대비 10%에 육박한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각 급 학교에 따른 청소년 인구집단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였다. 즉, 이 시기는 국민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지는 각 급 학교에 입학하는 청소년시기의 학령인구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각 급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컫는 용어의 분화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물론 일제치하에도 각 급 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소수 인구집단이 학교교육의 혜택을 누린 시기이다. 반면에 1960년대부터는 대중교육체제가 확산되면서 다수 학령기 인구집단이 학교교육의 혜택을 받게 되는 시기였다.

따라서 과거 일제시기 및 해방 이후 시기까지 소년이란 용어가 학령인구집단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 용어로 기능했지만, 이 시기부터 각 급 학교별로 나타나는 뚜렷한 차별성과 그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는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용어의 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래서 과거 포괄적 용어로 사용되어진 ‘소년’이란 용어가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국민학교 학생을 의미하는 저 연령 학령인구집단을 지칭하게 되었고, 중등학교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하는 용어로는 따로 아동이란 용어가 달리 사용되어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에 ‘아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가했던 세계적 흐름도 역시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는 1920년대부터 관심을 두었던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이 성문화되고 협약화 되던 시기였다. 먼저 아동의 권리가 한 국가의 차원에서 선언된 영국의 ‘세계아동헌장’(1922)을 아동권리에 대한 효시로 본다면, 국제적으로 협의·의결되어 국제적 문서로서 최초로 채택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얼마 되지 않던 1924년, 당시 국제아동구호기금(Save the Children Fund International)이 발표한 ‘제네바 선언’이었다. 제네바선언은 세계 최초로 아동복리를 위한 5대 원칙을 천명한 바 있는데¹⁴⁾ 이 선언은 같은 해 9월 국제연맹

14) 제네바선언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리를 위한 5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제네바선언 본문 5개조).

(The League of Nations)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국제연맹의 이름으로 정식 채택되었다(이윤구, 1989: 14).

그 후 20여 년이 지나 국제연맹이 국제연합으로 재결성된 후 1948년 12월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어지고 이 중 ‘아동권리에 관한 선언’이 1959년 총회에서 채택되어졌다. 그 후 ‘아동권리에 관한 선언’이 채택되어진 후 20주년이던 1979년, 유엔은 ‘국제아동의 해’를 제정하고 이 결정을 이어받아 1978년 2월 폴란드 정부는 제 34회 인권위원회에 대하여 1959년의 아동의 권리선언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으로 만들 것을 제안, 협약의 원안을 첨부한 결의안으로 제출하였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이 국제규약으로 조약화한 것 같이 아동의 권리선언이 아동의 권리협약으로 보다 강력한 국제규약화 하는 데에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시발점이 되었다(정태수, 1991). 이 후 인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협약초안을 작성하는 10여 년의 산고를 거쳐 아동의 권리선언 20주년, 국제아동의 해 10주년을 기념해 1989년 11월 20일 ‘UN아동권리협약’이 탄생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변화와 흐름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1974년 기존의 아동복지법을 아동복지법으로 확대 개정하고, 1975년 ‘어린이 헌장’을 제정하였다. 또한 1991년 11월 20일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세계흐름과 변화에 맞춰 기존의 소년이란 용어가 퇴색되어지고 다시 아동이란 용어가 청소년 인구집단을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진 것이다.

3) 학생과 청소년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중반까지 이르러 청소년이란 용어가 국가정책의 주요 시책으로 반영되고(1985년) 청소년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의 변화에 직면하면서 점차 달라진다. 국내 상황만 살펴본다면, 산업화와 도시화, 압축 고도성장의 시기를 거치면서 사회문제의 주요 이슈로 청소년문제가 대두되고 교육현장에서 쉬이 해결하지 못하는 교육병리현상이 등장하면서 과거 아동의 개념에 포함되었던 청소년이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아동의 개념이 갖는 ‘순응의 이미지’ 만으로는 포섭할 수 없는, 사회적 병리현상과의 대립에서 연유한 바가 크다.

- 제 1조. 아동은 심신양면으로 정상적 발달에 필요한 여러 수단을 가져야 한다.
- 제 2조. 굶주린 아동은 음식을, 병든 아동은 치료를, 발달이 늦은 아동은 도움을 받아야 하고 비행하는 갱생되고 고아와 부랑아는 주거와 도움을 받아야 한다.
- 제 3조. 아동은 위험한 때에는 최우선의 구제를 받아야 한다.
- 제 4조. 아동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제 5조. 아동은 그 재능을 인류동포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야 한다는 지각 밑에서 육성되어야 한다(제네바선언은 전문과 5개조의 본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5개조가 원칙임).

그런데 이 시기의 끝 무렵, 주목할 만한 변화의 흐름이 나타난다. 그것은 그 동안 교육의 객체로 삼아왔던 학습자인 청소년들이 근대 이후 부가되어온 '학생'이란 명칭으로부터 스스로를 벗어나려고 하는 데에 있다. 특히 미래를 위해 유보해야 했던 현재의 권리를 주장하고 청소년문제에 대한 '발화주체로서 서기'는 당시 청소년운동의 기본 골격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학생과 청소년의 개념 자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무성케 한 배경이었고(조혜정, 1999; 조용환, 1993; 2000; 김민, 1998, 2000), 청소년의 변화된 흐름을 '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켰다(현실문화연구, 1993, 1994; 이동연, 1998; 고길섭, 2000).

특히 앞서 기술한 학생과 청소년의 개념 자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근대(학생)와 탈근대(청소년)적 이분법에 두 개념을 대입함으로써 '탈 근대적 학교개혁론'을 이끄는 주요 동인(動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거시적 맥락에서 청소년문제를 진단하는 이 논의의 요지는 현대 사회가 근대화를 넘어 탈 근대화의 시기에 도달하였고 이러한 탈 근대적 상징이 청소년문제의 현상들을 읽을 수 있는 유효한 기호들이며 따라서 오늘날의 청소년문제는 탈 근대화 과정에서 근대적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제도교육현장의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련의 청소년문제 현상들은 결국 학생이란 개념에서 묶여진 청소년들이 학교의 규율체제, 학교 교육과정, 학교의 도덕적 권위, 학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으로 교환가능한 자격증 획득의 거부행위로 정의한다.

사실 청소년들이 취학연령이 된 이후 학교라는 현장에 편입되면서 갖는 이른바 '학생'이란 사회적 지위를 벗겨놓고 보면, 학생은 청소년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학생으로만 인정하려는 경향은, 청소년 시기란 '배워야 하는 학습시기'라는 곧 그 시기가 갖는 발달과업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의 배면에는 청소년시기의 생활양식을 학교라는 공간과 학생이란 사회적 지위에 제한하려는 사회적 규범이 강력하게 개입되어 있다¹⁵⁾. 이와 관련하여 김민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지금의 성장세대에게 적지 않은 문화적 변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문화적 변조상태를 학교는 일찍이 예측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경직된 구조로 방임해 왔다고 지적하면서(1998), 결국 지금의 세대 간 문화적 갈등구조를 다원화된 교육지지의 축조로 해결할 것을 일찍이 제안한 바 있다(2000).

조혜정(1999: 28-33)도 한국사회의 경우 국가주도의 근대화과정에서 '학생과 근로청소년', '학생과 불량청소년' 식의 범주화가 근대 전반부의 청소년들의

15) 학생이 아닌 청소년으로 오늘날의 성장세대를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과 논의는 사실 새롭지 않다. 서로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동일 시대에 같은 문제에 직면해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조용환, 조혜정, 김민의 시각은 매우 유사하다. 한편 김동춘(1999)도 그의 글 말미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의 청소년상을 더 이상 견지하지 말자는 말로써 같은 논의의 입장에서 서 있다.

삶을 지배한 주류 이분법이었으며, 후기 근대화론 들어와 소비자본주의 체제로 바뀌면서 '학생과 청소년', '학생과 소비자'라는 또 다른 이분법적 논리가 등장하였다고 논의하였다. 특히 그는 파행적 근대화과정에서 강화된 어른중심주의가 여전히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차단시켜버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지금까지 학생이란 정체성에 묶여진 청소년을 풀어주고, 청소년 스스로의 변신노력과 자생력을 이제는 존중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조용환은 초기 학교교육 체제의 문제로 접근하는 미시적 관점을 유지하다가(1993), 청소년문화란 개념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와 사회적 혹은 교육인류학적 맥락에서 청소년문제를 진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000). 그는 학교교육 제도와 학교문화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와의 갈등과 긴장을 주목하였는데, 현재의 학교제도와 학교문화는 청소년들을 '학생'으로 만들고 '학생'신분에 어울리는 문화를 '위로부터' 부여하고 있음으로써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지금의 우리 사회는 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삶을 구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모범적인 '학생'이 되도록 기대하지만, 청소년들의 총체적 생활세계는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학교는 학생들이 원초적인 청소년의 입장으로 돌아가 '홀로서기'를 모색하는 것을 권장하기보다는, 불안한 눈초리로 통제하고 유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는 달리 순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학자들은 초기 사회변화의 거대담론 속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중심으로 신세대의 변화된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다가(현실문화연구, 1993, 1994) 미래사회의 예측 불가능한 문화를 진단하는 프리즘으로써 청소년문화를 바라보는 미래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 주장의 배면에는 청소년세대의 문화자체가 미래를 예측하는 '단서'이며 따라서 그 단서를 문제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향후 사회를 바라보는 주요 통로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길섭, 2000).

이러한 대략적인 논의들을 기초로 삼아 아동에서 청소년이란 개념으로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의 개념이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80년 대 중반이었다. 구체적으로 1985년 '청소년건강육성'이 국가정책의 목표로 등장함과 동시에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어 1987년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법으로 '청소년육성법'을 제정하고 다시 1991년 12월 '청소년기본법'으로 확대 개정하면서 청소년 연령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9세부터 24세까지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9세부터 24세란 과거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18세 미만과 중복되면서 동시에 18세 이상 24세까지의 인구집단을 청소년 - 엄밀한 의미에서 후기 청소년(청년) - 의 개념에 아우르게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의 청소년 인구집단을 지칭하던 아동의 개념을, 청소년이란 용어가 상징하던 소년과 청년의 개념 안에 역으로 포섭하면서 청소년의 대상

인구집단을 확대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이 시기의 세계 흐름에 있어서 과거 아동을 중심으로 하던 흐름이 다시 청소년으로 그 대상이 전환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의 세계흐름의 특성은 아동과 관련해 아동권리를 위한 '보호와 지도'란 관점에서, 청소년으로 전환되면서 '참여와 개발'이란 능동적 자세로의 전환이 나타난다. 그것은 심리 발달적 특성에 있어 '의존'을 기본특성으로 삼는 아동과는 달리 자아정체성의 확립이란 기본특성을 갖는 청소년이란 인구집단의 차별성을 드러내어 청소년들을 위한 선언, 규약, 협약이 필요하다는 사유의 전환이 내재되어 있었다.

먼저 유엔은 세계아동의 해 이후 당시까지 아동의 개념에 포섭되었던 청소년의 개념을 분류해 1985년 '세계 청소년의 해'를 제정한 후, 유엔을 중심으로 청소년에 관한 기본 권리들을 각종 선언이나 규약에 의해 결의·채택·공포하기 시작했다. 1988년 '유럽각료회의'에서는 국가와 지방단위 청소년정책의 기본 조건으로서 '참여'를 선택하고, 청소년세대가 미래 '통합된 유럽의 진정한 시민'이란 측면에서 그들의 참여를 권리이자 의무라고 선언하였다. 이어, 1995년 '세계 청소년의 해' 10주년을 맞아 유엔이 발간한 '2000년대 이후 세계청소년실천계획'에 따르면, 청소년은 이제 대상에서 주체로 그 위상을 변모하고 있으며 선진 각국의 정부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청소년정책의 주된 방향도 '청소년참여를 통한 청소년개발'로 권고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98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장관회의'에서는 청소년들의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에 참여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1998년 수립된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1998-2002)'에서는 청소년참여를 정식으로 정책영역에 도입하였고, 참여적 맥락에서 '청소년문화'와 '청소년 정보화'의 영역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기존의 가정과 학교의 역할, 사회 환경 개선 등과 관련한 영역이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와 참여확산이라는 성격으로 크게 보완되어 '청소년운동' (youth movement)으로 영역화시켰다. 이는 향후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이 청소년참여를 주요 정책 특성으로 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대 전환하여 청소년정책의 중점을 전인적인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활동과 함께 청소년육성·보호·지원문제와 관련해 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문제해결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청소년 정책형성 및 심의과정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발의 및 심의기구로써 청소년위원회(지금의 청소년참여위원회)도 1998년부터 구성하기 시작했다. 또 1998년 10월 25일엔 새로운 청소년현장을 제정하여 청소년의 삶의 주체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현장의 형태로 명문화하기도 하였다¹⁶⁾.

16) 새로운 청소년현장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구 청소년현장이 청소년을 학생이란 개념으로 등치하고 있다면 새로운 청소년현장은 변화된 청소년관을 반영한 선언문이다. 구

그러나 이러한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을 여전히 학생이란 개념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고착된 청소년관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른바 <학생/청소년>의 이분법이 바로 그것이다. 청소년들을 '학생'의 신분에서 풀어내어 '청소년'이라는 보다 전인적인 존재로 부각하려는 의도에서 시작한 정부와 사회 각 계의 노력은 '청소년'의 이미지를 사회에 심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인정하는 사회적 인준 - '참여주체로서의 청소년' - 에는 아직 성공하지 못한 셈이었다. 더욱이 청소년으로서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실질적인 학교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학교 밖의 변화에만 매달림으로써 '절반의 실패'를 담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의 삶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사회 전체의 개혁과 변화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학생과 청소년 간에 노정된 긴장과 갈등의 흐름은 여전할 것으로 보여 진다.

2. 소년운동과 청소년운동의 변천사

1) 소년운동의 시원

청소년현장의 '청소년'이란 용어대신에 '학생'이란 개념을 대입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청소년은 새 시대의 주역이다. 뜨거운 정열을 가슴에 품고 자연과 학문을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굳게 뭉쳐 조국발전의 일꾼이 되어, 세계와 우주로 힘차게 나아가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이룩한다.

1. 청소년은 출생, 성별, 학력, 직업, 그리고 신체적 조건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모든 청소년은 적성과 능력을 갖고 닦아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슬기와 용기를 갖춘다.
1. 가정은 청소년이 정서를 가꾸고 애정과 대화를 나누는 곳이다. 아버이는 올바른 삶의 본을 보이며, 자녀는 어른을 공경하는 몸가짐과 맑은 성품을 익힌다.
1. 학교는 청소년이 조화로운 배움을 통하여 교양과 지식과 체력을 기르는 곳이다. 자질을 존중하고 자아실현을 통하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길을 가르치며, 문화의식과 민주시민 정신을 높인다.
1. 사회는 청소년이 즐겁게 일하며 보람있게 봉사하는 곳이다.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며, 더불어 사는 기쁨과 여가선용의 마당을 제공하고, 건전한 환경을 만든다.
1. 국가는 청소년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배움터와 일터를 고루 갖추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개개인을 각별히 보호하여 적용하고 자립하도록 이끈다.

- 구 청소년현장. 1990. 5. 12.
반면에 새로운 청소년 현장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한국 근현대 청소년운동의 정신적 뿌리를 화랑도 혹은 화랑도 정신에서 연유한다는 주장이 많다. 예컨대, 이는 근대 소년운동 연구자들이 대체로 가지는 공통된 견해이다(김정의, 1999 : 12-17). 청소년분야, 특히 청소년활동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에서 이를 지지한다. 하지만 명징한 연구결과나 확증은 사실 많지 않다. 청소년학사(靑少年學史)가 특별히 발달하지 않은 청소년학에서는 물론이고 인접 학문에서도 치밀한 고증을 배경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한 선행연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차제에 이에 대한 역사연구가 뒤따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아무튼 현재의 수준에서 보자면, 한국 근현대 청소년운동의 시원을 '적어도' 삼국시대부터 잡는 것이 통례인 듯하다. 여기서 '적어도'란 의미는 삼국시대부터 화랑도에 대한 기록이 사료에 등장하지만 그 출발의 시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나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신채호(1987: 383-397)는 화랑도 정신의 시원이 신라가 아니라 이미 단군 조선시대까지로 그 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고 강력히 신라시대부터라는 시원설을 부정한다. 한편, 체계적인 한국소년운동사 연구를 처음 이론적으로 천착한 조찬석(1973)도 한국소년운동이 삼국통일을 가능케 한 신라의 화랑도 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언급하고는 있으나 그 시원에 대한 논의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정의(1999)도 신라시대의 화랑도가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피하면서 단지 삼국사기에 의해 진흥왕부터라는 추정을 할 뿐이다.¹⁷⁾

화랑도는 주지하다시피 儒佛仙(道) 3교를 포함하여 세계 사상에 조화를 이룬 민중교화, 충효, 실천이 그 본질이다. 성장세대와 관련해 화랑도는 청소년 도의의 수양집단이자 동시에 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고, 민족성을 정립하는 교육기제로 다루어졌다. 이 화랑도 정신은 신라의 삼국통일, 고려조의 건국이후에도 반영되었으나 고려 중엽 서경천도 이후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나마 고려 말까지는 그 잔영이 남아있었지만 주자학의 도입으로 소년의 입지는 사라지고 소년은 단지 교화의 대상, 보식(保息)의 대상, 수양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조선후기 실학의 등장, 천주교의 도입이 이루어지면서 선각자들이 점차 소년문제에 눈을 뜨게 되고 다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심의 증폭은 18세기 무렵 개화의 물결을 타고 동학운동이 나타나면서 소년애호사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동학에서는 "어린이를 때리지 말라. 이는 한울님을 때리는 것" (최동희, 1969)이라며 소년보호에 대해 각별히 언급하면서 소년존중 관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관심의 전환은 을사조약 직전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일제의 강점이 예고되는 암울한 당시에 애국계

17) 三國史記 新羅本紀 4 진흥왕조에 '始奉源花'라는 말이 처음 나와 흔히 진흥왕 37년(서기 576년)을 화랑도의 시초로 보고 있다.

몽가들을 중심으로 소년의 가치를 절실히 깨닫고 근대교육, 민족교육을 통해 소년운동을 드높이게 되는 기반이 되었다. 한 마디로 근대 변혁기의 최대 관심사는 소년을 애호하고, 교육을 중시하며 소년을 사회적으로 바르게 교도하여 장차 자강독립의 역군으로 삼고자 함에 있었다.

2) 소년운동에 대한 시기구분과 연구사

한국 소년운동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1960년대까지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그것도 국권침탈기나 일제치하의 근대 소년운동에 치우친 접근들이 대부분이었다. 1960년대 끝무렵 들어와서야 정홍교(1969)의 「한국소년운동과 사회성」이 발간되면서 근대기를 중심으로 하는 소년운동에 대한 탐색이 시도되어졌다. 이후 「소과연구」의 김상련(1972), 「일제하의 소년운동」의 조찬석(1974), 「천도교 소년운동과 그 영향」의 윤석중(1974) 등에 의해 부분적으로나마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후 한국소년운동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또 연구인력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흐름에 김정의(1978), 신재홍(1983)이 가세하였고, 1990년대에는 오세창(1992), 안경식(1994), 이재철(1998)도 가담하였지만 연구인력 및 여건은 충분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들 선행연구자들에 의한 소년운동에 대한 연구는 그러나 시기상으로 근대에 집중하고 있고, 최근 청소년운동과의 거시적인 맥락은 아직 연결을 짓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청)소년운동 시기구분은 1975년(이재철, 1998) 혹은 1981년(김정의, 1989)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후속연구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근대 한국소년운동사의 시기구분을 처음 시도한 것은 국권 침탈기 소년운동에 직접 투신한 정홍교로 이 시기구분은 조찬석의 연구(1973)에 의해 원용되었다. 정홍교의 시기구분은 크게 6개의 시기로 구분되는데 이를 조찬석은 다시 크게 비합법적인 소년운동기와 민족민주주의 소년운동기 등의 두 시기로 묶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비합법적인 소년운동기 혹은 혁명적인 운동기
 - 제 1기(1920-24) : 민족소년운동의 자연발생기
 - 제 2기(1925-30) : 전성기
 - 제 3기(1931-35) : 수난기
 - 제 4기(1936-37) : 탄압과 해산기
2. 민족민주주의 소년운동기
 - 제 5기(1945-47) : 신민족소년운동의 배태기
 - 제 6기(1948년 이후) : 민족민주주의 소년운동의 발족기

이 같은 정홍교의 6단계 시기구분은 이후 하나의 준거가 되어 소년운동사 연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특히 광복전후를 기점으로 소년운동을 대별한 조찬석의 시도도 후에 후속연구자들이 광복을 기준으로 한국소년운동사를 근대와 현대로 대별하는 시기구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신재홍(1981)은 근현대 소년운동사를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 제 1기(1919. 3. 1운동 - 1924 소년운동협회의 성립) : 민족운동지도자들에 의해 추진된 소년운동 발흥기
- 제 2기(1925 오월회의 조직 - 1928 조선소년연합회의 창립) : 무산소년 운동자의 대두와 좌우연합기
- 제 3기(1928 조선소년총연맹의 결성 - 1931 전 조선어린이날 중앙준비연합회의 결성) : 좌우의 대립과 소년운동의 분열기
- 제 4기(1931년 이후 - 1937) : 일제 탄압으로 인한 소년운동의 쇠퇴기

신재홍은 소년운동발생기를 정홍교에 비해 1년 앞당겨 소급 적용한 것이 특징인데 이는 김정희와 오세창, 이재철과 같은 후속연구자들의 연구에서 적용되었다. 신재홍은 소년운동의 연대기를 사건중심으로 구분, 각 시기의 성격을 규정하여 근대 소년운동사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신재홍의 시기구분은 1931년까지로 못박아, 이후의 소년운동에 대한 연구관심을 확장시키지 못하였다.

본격적으로 소년운동을 이론적으로 접근한 연구자로 평가받는 김정희(1989, 1992 a)는 두 번에 걸쳐 소년운동을 구분한 바 있다. 그러나 후기에 논의한 소년운동 6단계 구분¹⁸⁾은 1945년 광복이전의 시기만을 포함한 근대소년운동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초기 9단계의 구분은 현대소년운동의 시기를 포괄적으로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이 글의 취지와 어울려 다음과 같이 여기에 밝혔다.

- 제 1기(1876-1909) : 개화사상을 통한 소년애호심 고취기
- 제 2기(1910-1918) : 근대 소년운동의 역랑축적기

18) 김정희(1992 a)가 2차로 시도한 시기구분은 다음과 같다.

- 제 1기(1860. 4 - 1905. 11) : 소년인식 계몽기
- 제 2기(1905. 11 - 1919. 3) : 소년운동 역랑 축적기
- 제 3기(1919. 3 - 1923. 4) : 근대 소년운동 발생기
- 제 4기(1923. 5 - 1930. 5) : 근대 소년운동 전성기
- 제 5기(1930. 5 - 1937. 9) : 근대소년운동 수난기
- 제 6기(1937. 9 - 1945. 8) : 지하 소년운동기

- 제 3기(1919-1923) : 근대 소년운동의 발생기
- 제 4기(1924-1930) : 근대 소년운동의 전성기
- 제 5기(1931-1937) : 분열·수난으로 인한 붕괴기
- 제 6기(1938-1944) : 지하잠적기
- 제 7기(1945-1948) : 현대 소년운동으로의 과도기
- 제 8기(1949-1980) : 현대 소년운동의 성장기
- 제 9기(1981년 이후) : 현대 소년운동의 각성기

특히 김정희는 소년운동의 첫 시기를 앞의 연구자들보다 훨씬 앞서 소급하여 1876년부터 잡고 당시까지 소년운동을 근대까지 바라본 기존의 관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현대기의 소년운동까지 연구관심에 최초로 포섭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소년운동을 접근하였다. 이는 개화기의 어린이 애호사상, 아동존중관의 맹아가 싹튼 시기부터 청소년운동의 출발점으로 잡았다는 점, 그리고 근대의 소년운동과 현대 소년운동의 맥락적 연결을 처음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갖는다.

오세창(1992)도 한국소년운동사 시기구분에 참가하였다. 그의 「일제하 한국 소년운동사 연구」를 보면 그 역시 제 1기를 1860년까지 소급함으로써 김정희의 견해와 일치한다. 이는 오랫동안 현안으로 남겨졌던 소년운동사의 출발점을 근대 변혁기로 정리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다만 1938년부터 1945년 광복이까지를 시기구분에서 생략함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오세창의 시기구분은 다음과 같다.

- 제 1기(1860-1910) : 여명기
- 제 2기(1910-1918) : 암흑기
- 제 3기(1919-1924) : 발흥기
- 제 4기(1925-1931) : 이합분열기
- 제 5기(1932-1937) : 쇠퇴기

이재철(1998) 역시 시기구분에 참가하였는데 그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제 1기(1867-1919) : 소년애호 인식계몽기
- 제 2기(1919-1923) : 근대 소년운동 발생기
- 제 3기(1923-1930) : 근대 소년운동 전성기
- 제 4기(1931-1937) : 근대 소년운동 수난기
- 제 5기(1937-1945) : 근대 소년운동 지하잠적기
- 제 6기(1945-1948) : 현대 소년운동 과도기

- 제 7기(1948-1962) : 현대 소년운동 성장기
- 제 8기(1962-1975) : 현대 소년운동 전환기
- 제 9기(1975년 이후) : 현대 소년운동 춘추기

대체로 6기까지는 김정의의 시기구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다만 제8기와 9기에 있어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는 현대 소년운동에 대한 새로운 연구관심의 출발을 의미하는 상징적 연구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자들은 길게는 1981년 이후 혹은 1975년 이후를 현대 청소년운동의 시기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80년대 중반 이후의 청소년운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 공통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무엇보다 70년대 중반이후 소년운동의 명확한 흐름과 변화가 10대에서 보여 지지 않고 있고, 둘째로는 80년대 말 혹은 90년대 초반부터 형성되는 청소년운동과의 연결접점을 쉽게 구할 수 없으며, 셋째로는 최근 청소년운동에 대한 연구관심을 이전 연구업적과 연결하려는 후속연구자들이 등장하지 않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첫 번째 요인을 살펴보면 10대에서의 소년운동이 70년대 중반 이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몇 가지 하부요인이 있다. 그것은 상술한 대로 소년, 혹은 아동이라 칭하였던 청소년인구집단이 학생이란 개념으로 포섭되면서 교육의 객체, 대상으로 폄하되고 또 그러한 생활 속에 구조적으로 편입하게 한 사회제도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시제도, 학력주의, 사회의 서열화 된 교육체제 등이 그 상징적 사례로, 입시교육이 교육의 한 부분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이 입시교육에 구속됨으로써 이루어진 현상이었다. 이러한 교육의 분위기는 10대 성장세대를 학생이란 개념으로 묶어둘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성장세대를 향한 사회적 화두(話頭)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가야 하는 시기'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결국 청소년의 자생력을 억압하는 기제(mechanism)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흐름과 분위기는 근대기부터 면면히 흘러온 '소년존중관'과는 배치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학생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갖게 하였다.

또 하나의 다른 하부요인은 60년대 이전의 소년운동이 대체로 민족주의란 이데올로기적 운동이었다면 이후의 소년운동은 민주주의란 또 다른 이데올로기 투쟁의 틀에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주의 획득을 위한 청소년운동은 4.19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고등학생의 사회참여가 있어왔지만 70년대를 기점으로 점차 그 운동의 주체세력이 대학생들 중심으로 한 청년으로 옮겨지게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시기는 아동(18세 미만), 학생이란 개념으로 청소년인구집단을 등치(等值)해 왔고 아직 청소년이란 용어가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전이었다. 따라

서 당시 이후 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의 청소년운동은 '학생운동'이란 개념으로 포섭되면서 자연스럽게 청소년운동의 별개영역으로 구분된 감이 적지 않다. 그러다가 80년대 말 90년대 초, 사회적으로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고 그러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10대 청소년들의 자생적인 운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자 다시 청소년운동이란 용어가 사용되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필자는 이러한 입장에서 청소년관 및 그들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 소년운동·청소년운동들을 크게 시기별로 세 시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첫째, 일제치하 이후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소년운동은 독립운동 혹은 민족자주운동의 한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제치하의 한국 근대소년운동사는 민족독립의 최후 보루로서의 소년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에게 기대감을 갖고 전개한 민족운동사의 전위였다. 이 시기의 선행연구들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체로 시기적으로 혹은 주요 사건중심으로 단절하여 살펴보는 연구들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주로 독립운동의 차원에서, 그리고 당시의 민족실력양성운동의 일환으로 소년운동을 파악하고 있으며 또, 해방이후 좌우익의 정치적 운동흐름을 제외하고 60년대 초반 4.19혁명, 한일회담 학생반대운동 역시 크게는 '민족자결'이란 큰 흐름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두 번째의 흐름은 60년대 중반이후 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 아우르는 시기로 주로 후기 청소년, 이른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운동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민족·민주·통일이라는 세 이념을 중심으로 전개된 정치적 성격이 강한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 시기의 학생운동을 청소년운동으로 포섭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이후 민주사회운동의 저변역할 및 연속성을 당시 학생운동이 갖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 선도적 기능도 충분히 하였다는 평가도 있어 통사적 관점에 있어 후속연구가 요청된다. 아울러 이전의 소년운동 주장이 함의하는 민족자주성이 일제치하의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에 근거하였다면, 이후의 학생운동은 민족자주, 민주통일이란 이데올로기 안에서 외세배격, 자주통일이란 신식민주의 저항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 분명한 연속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80년대 중반 이후 청소년의 주체적 지위확보라는 차원에서 묶어볼 수 있다. 1987년 6월 '서울지역고등학생연합', 1988년 '보충수업, 자율학습 폐지운동',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결성 사태 이후의 고등학생연합운동, 그리고 청소년들이 주도한 교육문화운동 등이 여기에 속한다. 특히 이러한 운동은 현실세계 뿐만 아니라 사이버스페이스에 근거한 비현실세계에서의 저항함직임이 활발한 실정이었다. 이른바 '두발자유화 서명운동'이라고도 불리우는 'No Cut 운동', '탈학교운동', '교육통화운동' 등은 당시 청소년운동의 주요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었다. 서명인구, 16만 여명에 달하는 No Cut 운동은 청

소년 웹 연대 'With' (ch.10, Ido, cyberyouth의 웹사이트연대)가 주관하였고 탈학교운동과 교육통화운동은 탈학교실천연대, 민들레, 하자센터 등의 대안교육단체에서 주관하였다.

이러한 운동들은 오늘날 청소년들이 학습주체의 하나로써 교육의 현실세계에 대한 참여의지를 모은다는 점에서 상반된 사회의 평가와 견해를 불러왔다. 특히 이 운동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학생으로서의 청소년'이란 기존의 시각을 청소년 스스로가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교육문제에 대한 발화주체가 90년대를 기점으로 교사와 학부모 집단으로 옮겨온 이래, 이제 학습자 집단도 교육의 발화주체로 서고자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과거엔 어떤 이슈를 위해 현장에 참여해야 하는 네트워크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네트워크를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대신하는 활동을 중시하면서 자발적 의식화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학습자 집단도 교육의 주체란 명제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이들의 움직임은 '학생으로서의 청소년'을 거부하기 위한 보다 실천적인 흐름, 실질적인 명분과 내용으로 채워진 거리시위와 집회의 문화로 확산되어졌다. 비록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2002년 한미 간 불평등한 소파협정을 주목하게 한 미선·효선 촛불집회, 월드컵 참여세대 거리 응원, 선거연령 19세 하향화 운동,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일련의 학생추모활동 및 최근의 광화문집회 등은 '자발적 의식화'로 진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청소년운동이 어떻게 발전되어지고 있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일련의 흐름이다.

III. 근·현대 청소년운동을 통해 바라본 청소년관

1. 근대의 청소년관

역사적으로 청소년기가 출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근대에 이르러야 가까스로 청소년기가 나타나고 또 현대에 와서야 청소년집단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확산되어 이들에 대한 어른의 '배려의 필요성'에 대해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으로 모아진다(최윤진, 1997 : 7). 서구만 하더라도 과거 고대와 중세에는 인생의 과정이 아동기와 성인기로 구분되었으며 혹은 그 구분까지도 명확하지 않다가 근대에 들어와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학교와 같은 교육제도와 대중교육의 발달,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인한 청소년 노동력 수요의 증대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기라는 새로운 인생시기와 그 시기를 살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또 유사한 몇몇 다른 연구들에서는, 16세기 중엽에서 17세기 서구에서는

아동을 어른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마치 망아지나 사냥개 길들이는 것 같이 장차 사역과 착취를 위한 투자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가 1870년대 이후에야 중산층을 중심으로 점차 온정과 보호 중심의 태도로 변모되기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러서야 유럽사회 전체로 확산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Freeman, 1983 ; 이봉철, 1991에서 재인용).

그래서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흔히 청소년이라 하면 성인 및 사회의 필요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재는 목살하여 영아의 경우 곧잘 유기되고 사고 팔리는 존재이자 희생의 제물이 되곤 하였다. 봉건적 절대주의 하에서 소년은 자기 나름대로의 욕을 가지고 인간적인 요구나 목표를 가지는 주체적 생활자가 아니라 단지 외부로부터의 주문에 의해 이모저모로 제공된 편리한 존재이며 가능한 한 지식이나 도덕을 담는 그릇정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이후 깊이 뿌리박혔던 유교정책으로 인해 유교의 교의가 우리의 정신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왔다. 그 가운데 明心寶鑑이나 童蒙要訣, 三綱五倫과 같은 소년이나 아동을 향한 교육내용과 나름의 교육체제들은 있어 왔으나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사회적 관심에 대한 종합적인 선행연구들은 보이지 않는다. 즉 지금의 청소년시기에 대한 조선조의 사회적 관심이 어떠했는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구결과나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은데 다만 몇몇 연구들로부터 그 단서를 구할 수는 있다. 그 중 손인수(1993 : 283)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에도 청소년들의 기질쇄신을 위한 규범으로 16조의 '학교모범'(學教模範)을 두고 학생들의 학교, 가정,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생활준칙은 있었다. 이 16조항은 뜻을 세움, 몸가짐, 글 읽기, 말을 삼가는 것, 마음속에 간직하여 잊지 말아야 할 것, 어버이를 섬김, 스승을 섬김, 벼를 택함, 가정생활, 사람을 접함, 과거에 응하는 것, 의를 지킴, 충직함을 숭상함, 공경을 돈독히 함, 학교에 거처함, 글 읽는 방법 등이다.

이러한 생활준칙은 모범적인 성인으로서의 자세를 일찍이 취하게 하기 위한 유교적 교의에 근거하고 있어 엄밀히 말하면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어른의 '배려'라기보다는 '요구'에 가깝다. 즉 조선조를 관통하는 유교의 목표인 수기치인(修己治人 ; 論語), 성기성물(成己成物 ; 中庸), 수제이치평(修齊而治平 ; 大學)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이론가들 중에는 "조선조에는 모든 어린이를 삼강오륜의 굴레에 묶어 소년인권을 운운할 상황이 못 되었다." 혹은 "소년인권이 절곡상태에 놓인 암흑시대"라는 혹평마저 하고 있다(김정의, 1992b; 14-19).

그러다가 근대적 의미에서의 소년관이 우리 사회에 등장하게 되는 시기는 주자학의 위세가 한 풀 꺾이고 실학의 물결이 일게 되는 개화기부터이다. 이 시기를 근대적 소년관의 출현기로 보는 것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일치하는데(김정의, 1978, 1989, 1992a; 오세창, 1992; 이재철, 1998), 이는 기존의 계급적 인간관이 퇴조하고 실학중심의 인간 평등성에 관한 사조가 힘을 얻는 당대의 사회분위기와도 밀

접하였다. 한편으로는 천도교, 천주교 등 인간본위의 종교적 영향력도 적지 않게 미쳤으며 이러한 영향력은 이후 소년애호사상과 독립협회, 애국계몽사상가 중심의 소년교육활동 중시경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근대기의 소년관은 근대적 교육운동과 같은 궤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그 시기의 소년운동을 발화시키는 배경요인이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방정환과 어린이날로 상징되는 한국의 근대 소년운동은 그래서 새로운 아동관에 터한 새로운 교육관, 교육방법, 훈련의 실제 등이 핵심적 요소였다. 또 근대 소년운동은 당시의 암울한 민족의 미래와 관련하여 이를 타개할 독립운동, 민족자강운동의 일환이었다. 따라서 1920년대 무렵이면 전국적으로 수 백 개의 소년단체들이 생겨나 어린이날 행사를 비롯하여 소년 및 소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강연회, 토론회, 체육회 등의 집회와 아동 및 소년잡지의 발간 등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지면서 아동해방의 사회운동으로 정착하게 되었다(이정국, 1988).

특히 한국의 근대 소년운동¹⁹⁾은 초기엔 아동의 인격과 인권의 존중 및 이에 따른 근대적 교육사상의 실천운동이었다. 그러나 '미성숙한 존재'였던 청소년들이 근대 이후 교육의 주요 대상으로 처음 자리매김 되면서 그 교육주체의 맹아가 싹트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자주성과 자생력에 대한 사회적 인준까지는 아직 확장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다만 근대 소년운동은 계몽과 교육의 대상으로 지금의 청소년인 소년들을 적극 포섭하였으며, 따라서 이들에게 적절한 지도와 훈육을 통해 민족의 장래를 맡겨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깔려 있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교의 교의에 의해 그 존재가치가 폄하되어진 소년의 권리를 회복하되 그러나 대상자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선까지는 확장하지 못한 근대적 한계성을 분명히 띠고 있었다.

그러므로 근대기의 소년관을 당대의 소년운동으로부터 유추한다면, 인권을 보호하고 적극 훈육하고 지도하는 대상으로 자리매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대의 소년관은 해방이후 한국사회에 있어 크게 지도와 육성의 담론, 보호와 복지의 담론이란 청소년관의 두 주류를 형성하게 되는 배경이 되며 동시에 현대에 들어와 학생이란 개념에 자연스럽게 포섭되는 배경으로도 볼 수 있다.

2. 현대의 청소년관

19) 사실, 소년운동이라는 용어는 소년회가 조직되면서 일어난 소년계의 움직임을 당시의 소년운동 지도자들이나 언론매체에서 그렇게 부른 데에 의거한다(동아일보, 1925. 1. 1. 3면). 즉 그들은 자신들의 운동을 사회운동으로 자각하면서 직접 소년운동이라고 불렀다. 당시는 사회적으로 청년운동, 여성운동, 노동운동 등이 활발하게 논의·실천되던 때였으므로 이러한 명칭은 자연스런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여성이나 노동자, 소년 등은 이른바 사회의 소외계층 혹은 보호와 지도의 대상으로 자리매김 되어진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소년운동을 사회 계몽운동으로 보는 학자(신재홍, 1983)도 있다.

해방이후 소년운동은 그 기세가 주춤하는 경향을 보인다. 민족자결의 흐름이자 이를 위한 실천적 민족독립운동·사회계몽운동으로 그 동안 자리매김한 소년운동으로서의 한계이기도 하였지만, 해방직후 좌우익의 극심한 이데올로기의 대립, 6. 25 한국전쟁, 그리고 그로부터 얻은 피해와 빈곤의 역사, 교육을 통한 국가와 민족의 자강이란 또 다른 역사적 과제가 대두된 것도 무관치는 않다. 그러다가 민주적 사회체제의 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지한 대중을 대신하는 선도적 기능으로 청소년이 사회에 참여하게 된 것이 바로 4. 19혁명이었다. 이후 한일학생회담반대운동에 이르는 60년대의 정치적 혼란기는 이른바 엘리트 학생 중심의 청소년운동, 학생운동으로 특징이 지워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60년대 중반 무렵 군사정부의 정권획득 이후 일련의 교육개혁조치가 취해지고, 대중교육제도가 확산되면서 그 양상은 다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해방이후 식민지교육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문화적 식민지경향을 명징하게 보이면서(김인회, 1988: 95-131), 비인간적 교육체제는 한국 교육의 현실로 다가왔고 교육의 수혜자인 청소년의 자생성과 주체성에 대한 사회적 인준 분위기는 점차 소멸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의 형성은 70년대 중반이후 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또 다른 청소년운동, 곧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운동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지만 순수한 의미에서의 - 정치적 탈색의 관점에서 - 청소년운동을 억압하게 한 근본요인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최근에 일고 있는 청소년운동은 바로 그 전의 정치적 색채를 농후하게 띠고 있는 학생운동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의미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근대 소년운동의 맥락을 이으면서 한 차원 성숙된 의미에서의 청소년운동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한 시각이라는 입장이 있다(한겨레21, 2000. 8. 17). 특히 이러한 입장에는 인터넷과 같은 사회적인 물리적 환경의 변화도 일조를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나날이 신장되는 10대들의 인권의식과 또 성장세대의 인권을 주목하려는 사회 분위기의 일대 전환이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사실, 1985년 이후 청소년폭력, 자살, 약물오남용, 가출, 집단따돌림 등 교육현장에서 처치하기 어려운 교육병리현상이 복합적으로 등장하면서 그 현상의 원인이 다름 아닌 교육의 현실에 있다는 지적은 자연스럽게 이들의 비인간적 교육환경으로 눈을 돌리게 하였고 이러한 시각의 교정은 점차 성장세대의 인간적 권리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이러한 현실의 구속과 강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깨달음으로써 현실변화를 위한 저항에 나섬으로써 최근 청소년운동의 일대 전환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더욱이 이들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기성세대(현병호, 조혜정, 김창복, 김희동)들과 단체(민들레, 하자센터, 대안교육기관 및 기타 시설 등)들이 가세함으로써 이들의 목소리와 힘은 배가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

의 움직임은 견고하기만 하였던 학교교육의 일대위기(수업붕괴, 교실붕괴, 학교붕괴)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고, 학교 밖의 다양한 대안교육체제의 축조에도 관심을 돌리게 하였다. 심지어는 '학교화'의 사회에서 '탈 학교화'된 사회로의 방향으로 청소년운동을 전환하는 이들(민들레, 탈학교연대)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일련의 청소년운동은 상술한 바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청소년 관에 터해 있다. 무엇보다 과거 배워야 하는 시기로 청소년기를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인격체로서의 사회적 인준을 받고자 함에 있다. 이는 학생으로서의 청소년이 아니라 청소년으로서의 학생이란 사회적 신분을 인정해주어 학교와 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시각전환을 원하고 있다(김현진, 1999a, 1999b). 이러한 이들의 적극적인 저항의 대상은 가장 근대성이 농후한 학교에 집중되어 있다. 즉, 탈근대성의 전형적인 자세라 할 수 있는 '지배적 질서 담론으로부터 자유로운' 성장세대의 변화된 가치관이 이제는 여전히 근대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학교교육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절대적이었던 학교의 권위와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학교는 더 이상 절대적인 교육공간이 아니며 오히려 '부조리한 사회계층화 기구'이자 '억압적인 통제 기구로서의 학교'라는 인식마저 주고 있다(이한, 1998)20). 물론 이들의 주장에 주관적이고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학력마저 중시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출현은 공교육만을 교육의 모토로 삼은 기성세대에게는 당황하기 그지없는 사실이었다. 더욱이 교육은 곧 학교교육이란 관념이 깨지고, 지금까지의 공교육이 학습자들의 욕구에 기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요구도 존중하지 않은 독과점적 체제로 운영·유지되어왔다는 비판은 앞서 교수자를 중심으로 한 기성세대의 학교교육 실패현상담론과는 엄청난 괴리감을 갖고 있었다.



그래 물이 먹고 싶다
주전자에 물을 떠왔단
말씀이야.
너희들이 물을 먹느냐
마느냐는 나한테 달려
있다구! 내가 너희들의
운명을 결정한다 말이야.
내가 없으면 너들은
죽은 목숨이야! 또 내가
없으면 너네들은 말이
지...

20) 당시 탈학교실천연대에서는 그 간 교육에 있어 학교교육의 권위와 기능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유지시킨 주요인물 '학력(學歷)'이라 보고 이를 근원적으로 철폐시키기 위해 「학력폐지와 자격검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까지 하였다. 이는 곧 누구든 학교에 다니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한 학교에 가는 일은 없도록 하며, '교육서비스와 능력평가'가 함께 묶여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학력에 의한 불합리한 사회적 위계화와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학교만 물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21)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학교에 기대를 걸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에 힘을 실어주지 않기. 그것이 또한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교육 곧 학교교육'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봅니다. 학교가 바뀌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만큼 우리는 학교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학교의 교육독점을 막고 우리 자신들의 교육의 권리를 되찾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학교도 그에 맞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현병호, 1999).

지금까지 학교는 경쟁자가 따로 없는 현실에 만족하며 독과점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경쟁상대가 없었기에 올바른 복지와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특히 학생이라는 수요자 층의 욕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도 독주를 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육으로 한국 학교가 해낸 것은 입시지옥과 돈봉투가 날아다니는 추한 현실과 학생들의 점점 강해지는 문화적 빈곤감을 양산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학교는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독주할 수 없다. 점차 사회제반 인식이 넓어짐에 따라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곧 다가올 것이다. 오랜 기간 쌓여온 비능률적이고 학생들의 요구가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학습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고조될 것이다(김현진, 1999; 101~102).

두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이들의 변화된 청소년관은 교육문제에 대한 발화주체로서 자신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난 90년대 초 전교조합법화 및 학부모 운동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벌어진 후 교육현장 및 교육정책 입안 과정에 있어 교사와 학부모 집단의 참여가 가능해지기 시작하였다. 사실 교육과정의 독점성과 배타성이 있어왔던 그 전의 시기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이 같은 상황의 전환은 이른바 '교육의 민주화'로 불리기도 하는 일대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제 학습자로서 수동적인 위치를 점하였던 청소년들마저 단위 학교교육 정책과 전체 공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No Cut 운동이 바로 그 실례이며 교육통화운동 등은 보다 급진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청소년도 교육의 발화주체로 서야 하고, 따라서 해당 단위학교에서의 학생회 조직, 교칙제정에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달라는 제의를 하고 있다(한겨레, 2000. 8. 11).

이들의 변화된 청소년관은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제 한 사람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대변할 수 없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전략

21) 민들레 홈페이지에 실린 삽화(<http://my.dreamwiz.com/deschool/>)

으로 채택한다. 이들은 사이버스페이스(on line)에서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익명성을 보장받고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문화적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로의 위치까지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생비자(prosumer)라는 신조어가 당시 등장하였으며 그때부터 그들 스스로가 청소년웹진, 청소년인터넷 방송국을 스스로 운영할 정도의 힘을 비축하고 있었다.

3. 청소년담론의 변화

이러한 청소년관의 변화는 지금까지의 청소년담론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른바 지도와 육성의 대상, 보호와 복지적 담론의 대상이던 성장세대들이 자신의 자생력과 주체성을 인정해달라는 의식의 전환 - 여기서 이를 '자발적 의식화'라 칭한다 - 이 이루어지면서 그 동안 이들을 바라보았던 사회적 담론에도 일대 전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성장세대를 일컬어 학생이란 개념에 포함함으로써 교육과 훈육의 대상으로 묶어둘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근대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는 성장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1) 지도.육성의 담론/보호.복지의 담론

청소년 관에 있어 지도와 육성의 담론은 그 역사가 매우 길다. 이른바 학생의 개념으로 청소년을 묶어 놓았던 대표적인 담론이 바로 지도.육성의 담론이다. 지도.육성의 담론은 명령과 지시의 언어와 내용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것은 하지 말라, 저것을 하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지도와 육성의 담론들이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담론의 주요 부분을 이루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근대를 관통하였던 소년계몽사상은 소년애호사상을 기반으로 소년을 교육의 대상으로 회복시켰지만, 동시에 대중교육제도의 수립.확산, 입시제도의 현실과 맞물리면서 청소년은 곧 학생이란 등식마저 성립시켜 그들을 학교교육에 구속케 하는 계기도 제공하였다. 더욱이 해방이후 급속도로 전개되어진 산업화과정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인적 자원의 개발과 육성이란 개발도상국가의 교육정책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완고하게 한 사회요인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교육이란 - 특히 학교교육은 - 하나같이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몰개성화교육의 흐름이 주도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교육제도와 사회제도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청소년을 학생의 개념으로 묶어 그 시기의 많은 발달과업 중 학업과제만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결국 지도.육성의 담론이란 이런 사회적 변화의 흐름에서 배태된 청소년 관의 결

정체였던 셈이다.

한편, 보호주의 담론은 원래 소수의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담론의 주요 흐름이었다. 이른바, 장애청소년, 근로청소년, 비행청소년, 수용청소년, 무부모 및 편부모 가정 청소년 등 어려운 사정에 놓여있는 청소년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삶의 안녕을 공공적인 측면에서 보장해주어야 하는 필요에 따라 형성된 담론이다. 특히 보호주의 담론은 학문의 영역에서 사회복지학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사회복지학의 실천적 영역에서 대상화된 성장세대는 주로 유아.아동.청소년이었는데 이들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18세 미만의 연령대상자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청소년관에 따른 보호주의 담론은 자연스럽게 복지적 담론(아동복지, 청소년복지)과 결합하였고 그 대상도 18세 미만의 의존적 특성을 갖는 아동과 청소년으로 제한되기 시작하였다(이종복 외, 1999).

그러나 소수의 청소년을 위한 보호주의적 담론은 곧 지시.육성의 담론과 결합해 매우 견고한 지배질서의 담론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특히 환경과 인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과 그 결과에 따른 실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 보호주의적 담론은 더욱 거센 흐름으로 다가왔다. 청소년 유해환경과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라는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첨예한 대립의 밑그림을 그리게 한 사회적 의제가 바로 이러한 담론으로부터 출발하였음은 일찍이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화개혁시민연대의 논란에서 보여졌다.²²⁾

지도육성의 담론, 보호와 복지담론 모두 청소년 스스로의 상황에 대한 판단의 자율성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기성세대의 자의적 그늘만을 드리우게 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최근 청소년세대를 중심으로 거부되기 시작하였다.

2) 발화주체의 담론으로

지도.육성의 담론, 보호.복지주의 담론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청소년을 미성숙한 인격체로 인정, 이해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성장경험의 특성상,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특성 상 단순히 객체와 수동자의 입장에서 머물 수는 없게 되었다. 그들 스스로가 갖는 박탈

22) 청소년보호법제정, 정보통신윤리법의 제정과 관련해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화개혁시민연대간의 논쟁이 한때 청소년계의 핫이슈였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성장세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규제위주의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당연히 그리고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반면에 문화개혁시민연대에서는 청소년의 주체적 자생성을 존중하고 성인의 권리도 역시 보장받아야 하는 대상이란 점에서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 특히 문화개혁시민연대는 청소년보호법은 철폐되어야 하며 대신 청소년진흥법을 입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과 상실의 느낌, 그리고 오히려 진순한 의미에서 세상을 더욱 날카롭게 살펴볼 수 있는 현실인식은 이제 단지 객체와 수동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능동자의 입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지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란 집단을 보호와 훈육의 대상, 지도와 육성의 대상이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당당한 사회의 동반자로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에 대한 발화주체로서, 스스로 진단.문제제기.사회적 협력과 지원을 얻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의 변신을 요구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지금까지의 청소년문화담론에 있어 청소년을 위한 담론(the discourse for the youth)은 있되, 청소년에 의한 담론(the discourse by the youth)은 없음을 개탄해 마지않는다(고길섭, 2000).

이제는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보아야 하는 시기다. 그로 인한 새로운 청소년담론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다. 특히 성장세대들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여러 실천운동들은 그러한 인식의 지평을 우리 사회가 넓히지 않는 한 저항과 거부 의 몸짓으로 다가오고 있다. 성장세대들이 그들 스스로의 삶에 발화주체로서 서고자 하는 오늘날의 움직임은 이러한 청소년 관의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다.

IV. 나가며

이 글은 청소년관을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 청소년운동을 살펴보고 일련의 청소년관의 변화흐름에 대해 조명하기 위해 쓰여졌다. 이는 기존 청소년운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근대를 중심으로 단절적으로 살펴본 것과는 달리 현대에 이르기까지 통사적 맥락에 의해 탐색한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운동에 함의되어 있는 청소년 관을 아울러 연결 짓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요약컨대, 소년애호정신, 소년존중정신으로 대표되는 근대적 청소년 관은 개화기 이후 우리 사회의 청소년 관으로 자리매김 되고, 이는 해방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학교공간을 중심으로 단단히 형성된 '학생'이란 이미지(像)로 표상되어졌다. 조선 조 유교의 교의에 의해 그 존재감마저 확실치 않은 청소년시기의 연령집단이 근대 이후 사회계몽운동, 독립운동, 민족자강운동의 일환으로 나타나게 된 소년운동으로 인해 인격적 존중감과 교육의 대상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 이러한 근대적 청소년 관은 국내의 사회변화의 흐름과 특히 성장세대 스스로가 보다 주체적이고 자생적인 존중감을 요구함에 따라 아직까지 근대적 청소년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제도 및 기성세대의 인식과 갈등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학생' 대 '청소년'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하에

서 진행되는 일련의 청소년운동이 바로 그 대표적인 상징적 사례이다.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청소년운동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교의 규율을 마땅히 내면화해야 하는, 학생이란 신분에 종속되기를 거부하고 있다. 소위 발화주체로서, 혹은 교육의 한 주체로서 그 지위와 역할을 인정해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 사회와 교육은 이렇게 변화된 청소년 관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아울러 그 대응방안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아이들의 몸에 주어진 옷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몸에 맞춰 재단을 해야 하는 시기인 셈이다. 더욱이 마음마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체제의 축조는 오늘날의 과제는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전개되어지는 청소년들의 자생적 움직임, 청소년운동은 지속적으로 탐색해야 할 대상이며 향후 구안해야 할 대응방안의 기초이기도 하다.

한편, 본 연구에 있어 제한점이자 동시에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 이후 현대에 이르는 청소년운동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해방이후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이후 80년대에 이르는 청소년운동의 정치적 의미와는 달리 지향하고자 했던 방향성과 내용은 무엇이며 이것이 근대 소년운동과 어떤 접점을 갖는가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70년대 이후 가속화된 소위 학생운동이 근대 소년운동 및 일련의 사회계몽운동과 성격상 크게 동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하겠다.

둘째,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청소년운동 및 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현장참여관찰 연구가 요청된다. 단지 이들의 주장을 담은 홈페이지나 단행본, 보도자료 등을 통한 의미와 내용탐색, 그리고 분석은 분명히 한계가 있으며,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도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무엇보다 이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내용들과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장시간의 누적적인 참여관찰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변화된 청소년 관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및 변화된 청소년 인구집단의 의식과 문화의 흐름 진단에 기초한 향후 교육적 대응방안도 적극 구안되어져야 한다. 단순한 교육체제에서 다원화된 교육적 지지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요구와 그들의 잠재된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고길섭 외(2000). **문화읽기 : 뼈라에서 사이버까지**. 서울 : 현실문화연구.

김동춘(1999). "학교해체 현상을 통해본 한국의 국가, 계급, 그리고 청소년". **왜 지금 우리는 청소년을 이야기하는가 : 청소년과 근대성**(1999. 10. 30. 국제학술심포지움 자료집). 서울 : 연세대청년문화센터.

김민(1998). **학교문화와 청소년복지**. 서울 : 한국청소년복지학회(한국청소년복지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김민(2000). 학교붕괴, 신화인가 현실인가. **교육인류학**, 3(2). 서울 : 한국교육인류학회.

김인회(1984). 교육목적관의 변천과정. **한국신교육의 발전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인회(1988). **교육과 민중문화**. 서울 : 한길사.

김정의(1978). **한국소년운동의 발생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김정의(1989). 한국소년운동고찰. **한국사상**, 21. 1989.

김정의(1992 a). **한국소년운동사**. 서울 : 민족문화사.

김정의(1992 b). 개혁지에 나타난 소년관에 관한 고찰. **논문집**. 서울 : 한양여자대학

김현진(1999 a). **네 멋대로 해라**. 서울 : 한겨레신문사.

김현진(1999 b). 재미없는 학교는 이제 그만. **창작과 비평**, 106. 서울 : 창작과 비평사.

동아일보(1925. 1. 1. 3면). 조선소년운동.

방정환(1978). **소파수필선**. 서울 : 을유문화사.

손인수(1993). **한국교육사, I**. 서울 : 문음사.

신재홍(1983). 1920년대 한국청소년운동.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한국근대문화운동**.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신채호(1987). 단군조의 업적과 공적. 개정판 단재 신채호 전집(상). 서울 : 단재 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안경식(1994). **소파 방정환의 아동교육운동과 사상**. 서울 : 학지사.

연세대청년문화센터(1999). **왜 지금 우리는 청소년을 이야기하는가 : 청소년과 근대성**. 서울 : 연세대청년문화센터(1999. 10. 30. 국제학술심포지움 자료집).

오세창(1992). 일제하 한국소년운동사 연구. **민족문화논총**, 1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8). **세계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결의들**. 서울 : 유

네스코 한국위원회(청소년연구자료집 1998-6).

尹健次(1987). **한국근대교육의 사상과 운동**. 심성보 역. 서울 : 청사.

윤석중(1974). 천도교소년운동과 그 영향. **최수운 연구**. 한국사상연구회.

이동연(1998). **하위문화는 저항하는가**. 서울 : 문화과학사.

이봉철(1991). 인권,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권. **한국청소년연구**, 2(4). 서울 : 한국청소년연구원.

이윤구(1989).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서울 : 국제연합아동기금(아동의 권리에 관한 전국대회 보고서).

이재철(1998). 한국어린이운동 약사. **아동문학평론**, 88. 서울 : 아동문학회.

이종각(2000). 21세기와 학교와 교실,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21세기 학교교육 발전방향**. 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9. 2. 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창립 2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이종복 외(1999). **현대청소년복지론**. 서울 : 양서원.

이한(1998). **학교를 넘어서**. 서울 : 민들레.

조용환(1993). 청소년연구의 문화인류학적 접근 : 청소년의 실체와 청소년문화의 이해. **한국청소년연구**, 4(3). 서울 : 한국청소년연구원.

조용환(2000). 교실붕괴의 교육인류학적 분석 : 학교문화와 청소년문화의 갈등을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3(2). 서울 : 한국교육인류학회.

정태수(1991). **아동의 권리협약 - 청소년의 권리**. 서울 : 예지각.

조찬석(1973). 일제하의 한국소년운동. **인천교육대학교교육연구소 논총**, 4. 인천 : 인천교육대학교

조찬석(1976). 1920년대 경기지방의 소년운동. 인천교육대학기전문화연구소. **기전문화연구**, 7. 인천 : 인천교육대학교.

조찬석(1978). 1920년대 서울지방의 소년운동. **인천교육대학논문집**, 12. 인천 : 인천교육대학교.

조혜정(1996).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서울 : 또 하나의 문화.

조혜정(1999). 청소년문제에서 청소년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 한국의 근대화와 청소년의 주체형성, **왜 지금 우리는 청소년을 이야기하는가 : 청소년과 근대성**. 서울 : 연세대청년문화센터(1999. 10. 30. 국제학술심포지움 자료집).

최동희(1969). 천주교 지도정신의 발전과정. **3.1운동 50주년기념논문집**. 서울 : 동아일보사.

최윤진(1997). 청소년 인권. 그 현실과 이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오늘의 청소년**, 118. 서울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탈학교모임 친구들(1999). **자퇴일기**. 서울 : 민들레.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1974). 한국스카우팅의 새 이정표(74년도 전국훈련회의 보고서). **보이스카우트, 12** 부록. 서울 :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
 한겨레. 2000. 8. 11일자.
 한겨레 21. 2000. 8. 17. 10대도 사람이다. 중딩.고딩들의 권리찾기 선언.
 현병호(1999). 길이 뵈시다. **민들레, 1**. 서울 : 민들레.
 현실문화연구 편(1993). **신세대 : 네 멋대로 해라**. 서울 : 현실문화연구.
 현실문화연구 편(1994). **신세대론 : 혼돈과 질서**. 서울 : 현실문화연구.

<< 잡지 및 정기간행물 >>

- 소년.
- 신문관.
- 개벽. 개벽사.
- 어린이. 개벽사.
- 별건곤. 개벽사.
- 천도교회월보

<<인터넷 사이트>>

- 민들레 <http://user.chollian.net/~mindle98>
- 탈학교모임 <http://my.dreamwiz.com/deschool/>
- 문화개혁시민연대 <http://www.cncr.co.kr>

부록 1: 연세대학교 대나무숲 10월 27일 오후 5:55:23 게시.

공주전(전문)

옛날 헬-조선에 닭씨 성을 가진 공주가 살았는데 닭과 비슷한 지력을 가졌다. 그 자태가 매우 고결하여 저갓거리에 흔히 파는 어묵을 먹는 방법을 몰라 먹지 못했고,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백성들이 악수를 청하면 겸허히 물러서서 손을 뒤로 빼는 등 공주로서의 위용을 잃지 않았다. 공주가 처신을 잘못할 때면 공주를 숭배하는 자들이 변호하기를, “공주가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었고 아버지는 독재에 여념이 없어, 공주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라고 했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애정을 담아 공주에게 ‘그네경듀’ 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모친을 잃은 공주가 스물셋이 되던 해 신분 세탁의 기회를 엿보던 무당 최씨가 공주를 뵈기를 청했다. 무당이 말하기를, 소인이 돌아가신 중전마마에 빙의하는 미천한 재주를 보여드릴 수 있나이다.”

공주가 한참 생각하다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그.. ‘빙위’ 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정신을 좀 차리게 만들고 또 그와 함께 이런 어떤 슬픈 마음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가라앉히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다시금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참 좋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번역기를 돌린 후에야 공주가 승낙했다는 것을 가까스로 이해한 무당은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닭은 인제 미끼를 물어버린 것이여.’ 하고 생각하였다.

무당이 공주의 모친 육씨의 성대모사를 하는 등 각종 재주를 시전하자 이에 홀담 반한 공주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무당을 불러들였다. 무당은 기뻐하며 청에 응했고 곧 공주를 등에 업고 날로 기세가 등등하였다. 이를 알게 된 공주의 아버지는 대로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주색에 빠져 있던 중 날아온 탄환에 비명횡사하였다.

무당이 공주를 짐짓 위로하며 말하였다.

“소인은 약간의 도술을 부릴 줄 알고, 공주마마께서는 유체로부터 이탈하는 화술을 지녔으니 힘을 합치면 새로운 세상(新天)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주가 이를 듣고 과연 옳다 여겨 무당이 스스로 교주가 되어 이끄는 사람들을 돕는 데 열성과 국고를 아끼지 않았다. 무당에게는 시리라고 불리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재주나 간특함이 아버 못지않았다. 어느 날 무당이 딸을 불러 긴히 이르기를, “공주는 참으로 순수한 녀를 지녀서 네가 보좌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 위로하며 뒷일을 맡기고 눈을 감았다. 무녀는 부친의 조언에 따라 공주에게 수제 가방을 선사하여 신임을 얻었고, 곧 서로를 언니, 동생이라 칭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 공주는 최씨 무당을 기리기 위해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새누리(新天)’ 라 명명하고, 부친을 잃은 설움을 호소하여 세간 사람들의 동정을

피하였다. 새누리 무리는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의미에서 '개(開)' 자를 써서 개누리라 불리며 공주를 수호하는 데 여념하였다.

하루는 공주의 근심하는 낯빛을 보고 무녀가 연유를 묻자 공주가 대답하기를, "지금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내가 머리가 그렇게까지 막 좋은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런 어떤 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근심하게 만들고 그제.. 그리고 연설문을 작성하는 법을 도통 모르겠으니 노오력을 해가지고 준비를 잘 하고 그러면 될 텐데 그제 또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나를 괴롭히는 것, 그제 문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무녀는 실성한 공주를 위로하는 한편 그 자리에서 즉시 연설문을 빨간펜으로 고쳐 공주에게 보였다. 학습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던 공주는 크게 기뻐하며 무녀에게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도와 달라고 졸랐다. 무녀는 공주의 뛰어난 지적능력에 속으로 경악하면서도 공주의 연설이나 토론은 물론, 의복과 표정을 정하는 것까지 돕기를 힘써 마지않았다. 공주는 무녀의 모든 가르침을 귀중한 수첩에 받아적었고 한 문장이면 될 것을 스무 문장으로 늘리는 기적에 가까운 화술을 선보였다. 공주의 말씀은 한 마디 한 마디가 심오하고 난해하여 전국의 뛰어난 학자들이 모여 밤새 토론하였으나 말씀의 진위를 반도 헤아리지 못하였다. 한 신하가 감탄하며 그 비결을 묻자 공주가 대답하기를,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주므로 누구나 유체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 라 하였다. 이에 세상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앞다투어 우주의 기운을 얻은 공주의 화술을 번역하고자 힘썼고 공주에게 '수첩공주' 라는 영예로운 호칭을 선사하였다.

공주가 보기 드물게 #순실한마음을 지녀 무녀를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빨간펜 세우기와 책상 내려치기밖에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공주가 푸른 기와집으로 거처를 옮긴 지 이 년이 흘렀을 때 여객선이 침몰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당시 무녀는 덕국(德國)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시차로 인해 아직 자고 있을 무녀가 깨기를 기다리던 공주는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끊임없이 빨간펜을 세우는 기술을 갖고 닦는 근면함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구조 작업을 의문스럽게 방해하여 수많은 음모론의 탄생에 크게 기여하였다. 민심을 달래기 위해 공주는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전무후무한 비책을 내놓아 못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는 기록이 있다. 평소 간을 잘 보기로 명성이 자자한 안(安)이라는 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한참 간을 본 끝에 이렇게 평했을 것이다.

"이때 고심한 자는 공주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수첩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루는 효심이 지극한 공주가 부친의 찬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역사서를 새로이 편찬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뜻 있는 많은 선비들과 학생들이 일어나 반대하였으나 공주는 망설이지 않고 이들을 모두 '혼이 비정상' 이라 칭하는 신비한 예지력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이 감탄하자 공주가 단호히 이르기를,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렇게

해서 그런 기운이 오고 또 그런 마음을 그 기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다는 것을 내가 몹시 잘 알겠다." 라 하자 아무도 그 심오한 말뜻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나서는 자가 없었다.

어느덧 공주가 무녀를 위해 여러 재단을 세우고 횡령한 국고가 수천억 원에 이르러 바야흐로 #순실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또한 부친의 뜻을 본받아 왜국과 굴욕적인 협상을 맺는가 하면 물대포를 가격하여 죽는 사람도 생겨났다. 나아가 민심을 직접 읽고자 민간 통신수단을 친히 사찰하고 불만을 드러내는 자에게는 택배를 보내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단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때문에 사람들의 원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져 하늘을 찔렀으나 그때마다 놀랍게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의 열애설이 터져 공주는 늘 비난을 모면하였다. 공주가 학비를 반값으로 줄이겠다는 무녀의 공약을 받아 적기는 했으나 지키지 않아서 나라의 젊은 학생들은 밤낮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아르바이트를 하다 지쳐서 울부짖었다. 공약을 왜 지키지 않느냐는 힐난이 쏟아지자 공주는 "내가 말한 적 없다" 라 단언하여 모든 것은 무녀가 말한 것이 라는 진실을 은연중에 인정하였다. 보다 못해 공주를 따르는 새누리 무리 중 '킹' 으로 불리는 자가 지친 학생들을 "고생도 좀 해 보고 빛도 있어봐야 한다" 라는 주옥같은 따스한 말로 위로하였다. 또한 전에 나라의 교육을 맡아보던 한 관리는 민중을 포유류인 개와 돼지에 빗댄으로써, 민중이 조류인 닭보다 지적으로 월등히 앞섬을 완곡하게 표현하려 하였으나 소통에 실패한 바 있다.

한편 무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으니 정이라고 했고 공주라 불리기를 좋아하여 스스로 정감록을 실현코자 하였다. 정은 말 타는 기수가 되고자 했으나 실력은 영 좋지 못하였다. 백날 닭을 잡고 곳을 해보아도 진척이 없자, 무녀는 고심 끝에 정에게 학사경고를 선사한 지도교수를 친히 찾아가 건물이 떠나가라 크게 호령하였다.

"교수 같지도 않은 게."

무녀가 전 지도교수를 쫓아내고 새로 앉힌 교수는 먼저 정의 안부를 묻고 시중을 들 학생을 몸소 구해주는 등 큰 활약을 펼쳤다. 또한 정의 비속어와 색다른 철자법이 난무하는 과제의 특이점을 인정받아 놀라운 학점을 받자 많은 학생들의 원한이 사무쳤다. 무녀와 그 딸은 세간의 눈총을 피해 덕국으로 잠적하였으나 곰탕과 김, 가루커피를 챙기는 대신 공주를 위해 작성한 수천 건의 문서를 흘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다. 손(孫)씨 성을 가진 의로운 선비와 그를 따르는 선비들이 이를 알고 크게 놀라 특종으로 내보냈다. 세간 사람들이 공주와 췌씨 일가의 농간에 대해 알고 경악하는 한편 의로운 선비들 및 사상 최초로 민심을 하나로 모은 공주의 깊은 뜻을 찬탄해 마지않았다.

이에 크게 느낀 바가 있어 병신년(丙申年) 모월 모일 모시에 이 글을 기록하였다.

Again,

청소년보호복지에서의 운동

Youth

김 현 수
(씨들꽃청소년세상 이사장)

Movement

청소년보호복지에서의 운동

김현수/(사)들꽃청소년세상 이사장

1.

아동청소년의 기본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은 분리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청소년쉼터나 그룹홈 자립팜에 입소하는 청소년 들에겐 보호권이 일단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 당장 생명을 구하는 것이 급한 경우는 생존권이, 학업과 배움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해있는 경우는 발달권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결정해야하는 경우는 참여권이 먼저일 것입니다. 어쨌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해서 그룹홈이나 쉼터 자립팜에 들어오는 청소년들과 지난 22년을 함께 생활하거나 지원하는 일을 하면서 이 기본권리는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결국은 심각하게 청소년들의 권리가 훼손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들꽃청소년세상이라는 청소년보호시설은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단순한 참여를 넘어 청소년들이 주도성을 발휘해왔다. 지난 22년을 돌이켜보면 설립과 운영에서 청소년 들의 주도성이 왜 기관의 가치와 철학이 되었는지가 분명해질 것이다.

먼저 청소년에 대해 무지하던 내가 청소년들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관점'이 형성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참여와 주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2.

1994년 10월 9일부터 청소년들과 동거가 시작되었다. 11살에서 13살의 어린 청소년 들이었다. 남자 아이들 6명은 나와 교회에서 잠을 자고 여자 아이 2명은 우리 집에서 우리 식구들과 잠을 잤다. 그런데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던 11월 중순, 그러니까 아이들과 동거를 시작하고 한달 쯤 되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열댓명의 청소년 들이 곁에서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열여섯 일곱 살 된 큰 아이들이 더 들어온 것이다.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쳤고 민원과 신고가 끊이지 않았다. 본드에 취한 아이들이 지나가는 아주머니에게 연탄재를 던져서, 오토바이를 잃어버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타고 있는 것을 보고, 밤에 아이들이 봉고차에 몰려들어 밤새도록 시끄럽게 해서, 자기의 자녀들이 무슨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하루에도 몇 번씩 주민들이 찾아왔다. 아이들이 파출소를 들락거리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 되었다. 경찰서에 잡혀간 아이들을 면회 가니 담당 형사는 "이 놈들은 구제불능이에요. 몽땅 구속시켜서 격리해야 합니다."

입장이 단호했다.

어느 날은 아이들과 거리를 지나가다가 아저씨 한 분을 만났다. 이 분은 아이들에게 화를 내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다. 아이들이 불쌍해서 집에 데려다가 목욕도 시키고 밥도 먹었는데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이다. 이런 놈들은 도와줘도 소용없다며 우리에게도 조심하라는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파출소의 김순경이었다. 김순경은 아이들을 보면 말도 하지 않고 무조건 끌고 가서 무자비하게 때렸다. 아이들은 김순경에게 지지 뵈었다곤 했다.

3.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주민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기전부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곤 했다는 분식집 아주머니를 만났다. “애들이 특하면 굶어요. 어찌다 밥 한끼 주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녀석들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라며 아이들이 교회에서 살게 되어 너무 잘 났다고 기뻐하셨다. 아이들을 데리고 몇 달씩 함께 산 중국음식점 배달을 하는 청년이나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18살 여자청소년도 만났다. 교회의 3층 아주머니는 공장에 다니면서 힘든 가운데에서도 아이들 빨래를 맡아주셨고 아이들을 데리고 정기적으로 캠프를 해주는 청년들도 나타나고 반찬을 가져다 주는 이웃주민, 학습 지도를 맡아주는 자원봉사자들도 찾아왔다.

부모와 가정을 잃고 거리로 던져진 청소년들에 대한 따뜻한 동정과 연민이 우리 사회에는 없지 않았다. 가정을 잃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과 부모의 보살핌이 더욱 필요하다는 호소는 공감을 받았다. 또 한편으로는 가출해서 본드를 흡입하고 휘청거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커서 사회적 격리를 주장하는 분들도 많았다. 어쨌든 아이들을 만난 초창기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좋은 일하는 것은 알겠는데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해서 동네를 시끄럽게 하느냐?”라는 것이었다.

4.

청소년들에 대한 나의 의식수준도 딱 그 정도였다. 어떤 때는 아이들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했다. 아이들이 겪어온 사연들을 알면 알수록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아이들의 걱정스런 행동들, 특히 약물을 흡입하고 비틀거리거나 힘이 없는 아이들을 앵벌이시키고 갈취하는 등의 비행을 보면서 차라리 소년원에 격리조치를 하는 것이 더 옳바르지 않을까를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했다. 하루 하루가 전쟁같은 나날들이었다.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일을 저질렀다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도는 첫째로는 처음 만난 11살에서 13살의 어린 청소년들을 50여명의 거리청소년 집단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다. 처음 8개월은 교회에서, 아파트에서 3개월 봉고차로 1개월 폐농가에서 6개월...이런 식으로 2년동안 유랑생활

을 하고 나서야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었다.

작은 아이들과 대안가정을 꾸리는 한편, 거리아이들 속에 거리학교를 만들었다. 안산역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천막을 치고 밥을 먹이고 놀이 프로그램을 하곤 했다. 또한 성교육이나 안산역 청소하기와 같은 봉사프로그램을 했다. 또한 원곡동에 만화방을 얻어 청소년들이 수시로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초창기 우리의 모습은 복지나 교육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청소년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리 청소년들 속으로 찾아가는 형태였다. 뭐랄까, 우리 기관 자체가 거리생활을 하였다고나 할까.

5.

그런 상태로 2-3년을 지내다보니 언제부터인가 거리청소년들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50여명의 청소년들 상호간의 관계망, 유기적인 생태계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도 볼 수 있었다. 청소년들을 한 명 한 명 보더라도 청소년의 뒤에 있는 세계가 보였다. 개별적이고 파편적으로 보지 않고 청소년 세계에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깨달음처럼 문득 다가온 ‘독립투사’라는 말은 내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이 되었다. 당시에 소감을 써놓은 글이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는 일은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다. 아이들은 좀처럼 일어나질 못한 채 짜증을 내고 투덜댄다. 아이들을 깨우노라면 나도 화가 나고 소리를 지르게 된다. 아침은 그렇게 괴롭게 시작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곤히 잠들어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다가 문득 ‘독립투사’라는 말이 떠올랐다. 아이들을 독립투사로 생각하게 되자 새롭게 이해되는 것이 많았다. 그리고 보니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렬한 욕구는 ‘독립’이었다.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 간섭과 억압을 당하지 않는 주권을 확립하려는 바람이야말로 가장 강렬할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욕구였던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욕구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곱씹어볼 것이었던가.

“p군은 어른들에 대한 반감이 유난히 컸다. 나에게 말할 때도 얼굴을 돌리고 빈정대는 투로 말하곤 했다. 그러나 그는 친구나 동생들에게는 특별한 친화력을 발휘해 분위기를 끌어가는 능력이 있다. p군이 얼굴을 돌린 채 빈정대는 투로 아이들을 대변하며 내게 대들 때마다 나는 알 수 없는 분노와 낭패감을 느꼈다. 그러나 아이들을 독립투사로 보면서 그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했고 나의 마음도 평안해졌다.

0군은 나이와 힘으로는 우리 집의 맏이지만 맏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 여름 국토보도여행을 통해 그는 달라졌다. 여행은 조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장들은 주저앉은 조원들을 부축하고 들쳐업으면서 목적지까지 도달한 마지막 날에야 자신들도 숨어서 많이 울었다는 얘기를 털어놓았다. 0군은 그때 조장은 아니었지만 그런 조장들이 멋있어 보였던 것 같다. 어쨌든 0군이 아이들에게 힘을 행사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p군의 친화력이 합쳐지고, 나의 시각이

변하면서 우리 집에서의 '아이들의 나라'는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일상생활 전반과 중요한 가족회의 안전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처리하는 일들이 많아졌다. 그 중에서도 '들꽃피는학교'의 존재 의의인 상처받고 마음이空空 달린 아이들의 마음을 녹이는 일은 아이들의 몫이 되었다.

오늘도 새롭게 열여섯 살짜리 아이가 새 식구로 들어온다. 집을 나와 거리 생활을 한 지 벌써 1년이 넘는 아이다. 소년원에도 다녀왔고 약간의 자폐증세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 밤 아이들은 새로 들어온 친구를 둘러싸고 우리 부부 몰래 밤을 새울 것이다. 과자봉지를 뜯어놓고 화가 날 때는 욕을 해대면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리라. '자신들의 나라'를 갖지 못한채 서럽게 살아온 아이는 오늘 밤 '자신들의 나라'를 보고 마음을 풀 것이다." (동아일보 2000년 12월 3일자 "아침을 열며" 중에서)

6.

그러나 이러한 관점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청소년들을 잘 알고 청소년들과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끊임없이 청소년에게 묻고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사건들이 많다.

초창기의 어린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할 때의 일인데, 아침부터 시무룩하고 밥도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는 아이가 있었다. 그런데 저녁때 다른 아이가 알려주는데, 꿈에 햄버거를 막 먹으려는데 내가 깨웠다는 것이다. 저녁에 우리는 햄버거를 먹으러 갔다. 그리고 꿈에 햄버거를 못 먹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아이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알아보아야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된 사건이지만 내 몸엔 아직도 아이들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아이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7.

우리 기관에는 회의가 많다. 가족회의 마을회의 청소년운영회의...마을전체회의가 소집된 계기가 있었다.

청소년들이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궁금하다는 것이었다. 모든 청소년들이 모이고 회계를 맡고 있던 실무자가 회계보고를 했고 질문을 받았다. 그 중에 후원금으로 선생님들의 자녀 양육비가 왜 지출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지출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자녀의 양육비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요지였다.

당시는 그룹홈이 아직 제도화되기 전이었고 재정이 어려워 급여대신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던 때였다(자녀가 있는 경우). 나는 들꽃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선생님을 여러분들 곁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곁에 지속적으로 있기 위해서는 자녀들도 키워야 되지 않느냐고 솔직하게 지출의 취지를 이야기했다. 청소년들은 기쁘게 그 지출 취지를 받아들였다.

이런 과정은 단순히 청소년들에게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선다. 청소년들이 운영의 주체가 된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 기관에 대한 신뢰와 선생님들을 자신들이 이해하고 도와야한다는 그런 인간적인 교감까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해에도 청소년폭력의 문제가 대두되어 대표회의까지 청소년들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이 때 기관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힘든 토론을 거쳐야했다.

기관에 대한 의혹들이 있게 되면 그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광범위하게 되고 최종적인 피해를 청소년들이 겪을 수밖에 없다. 청소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바쁘지만 시설별로 지역별로 또 전체적으로 청소년운영회의를 구성하고 기관의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유이다.

8.

들꽃에는 다양한 기관과 시설이 있다. 이들 서로 다른 기관과 시설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행사를 진행하는 일이 많다. 예를 들어 "들꽃이야기 So Grow(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들꽃의 모든 기관과 시설의 청소년들이 참여한다. 행사 기획과 진행을 청소년들이 맡아서 한다. 이 프로그램과 행사는 한 마디로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한 해 목표, 자신의 욕구와 바람을 나누는 것이다.

목표는 학업을 향상시키는 것도 있지만 다양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인 다든가, 번지점프를 해서 담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가 되기도 한다. 밴드활동을 하면서 대회에 나가거나 해외여행 가는 것이 목표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이에 필요한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 딱딱할 것 같은 이 행사가 놀라운 축제의 장이 된다. 노래와 춤으로 발표하는 친구도 있고 자신이 다니는 태권도 도장의 친구들을 데려와 시범을 보이기도 하고, 영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웃음과 탄성소리가 왁자지껄하다. 끝나고 나서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논다.

시설에 있다 보면 자신의 욕구와 바람을 찾지 못한 채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비행에 빠져들기도 쉽다. 한마디로 시설병이다. 실무자들이 무엇인가를 제공하고 동기유발을 위해 애쓰지만 꿈쩍도 안하기 일쑤였다. "들꽃이야기 So Grow(속으로)"를 통하여 청소년들은 서로 격려하고 관심을 나누게 된다. 청소년들의 숨은 욕구와 바람을 일깨우는 일은 역시 청소년 자신들이란 것을 알게 되니, 실무자들은 뒤에서 여건만 마련해주면 된다. 그 내용을 채우는 일은 역시 청소년 자신들의 몫이다. 청소년 자신들이 주도성을 발휘할 때, 그토록 어렵던 청소년들의 욕구와 바람을 일깨우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9.

자신 속에空空 숨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여건은 우리 기관이나 실무자들이 마련해 주지만 아이들은 스스로, 그리고 서로를 치유해준다.

아이들이 '가족'을 주제로 단편영화를 만들고 있었다. 들꽃스마트폰 영상페스티벌에 출품할 작품이다. 거리에 있는 아이들부터 슈퍼, 그룹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아카데미에 있는 아이들 등 17개 팀이 참가신청을 하였고, 열심히 영상물들을 창작하고 있다. 영상물 형식은 단편영화, 다큐, 뮤직비디오 등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우리 집 아이들도 그 하나의 팀으로서 단편영화를 창작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몰입이 놀랍다. 몰입했기에 밤을 새운다. 줄거리를 짜고, 제목을 붙이고, 촬영을 하고, 편집까지 하는 전(全) 과정이 그야말로 몰입이다. '대못'은 그 영화의 제목이다. '엄마의 향기', '알아 주세요' 등의 제목들 중에서 최종 '대못'으로 정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아이들이 겪어야 했던 폭력과 상처들을 상징하는 제목이다.

영상물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겪어온 생생한 이야기를 한 편의 영화로 만드는 것에 아이들은 흥분하면서 밤을 새우곤 하였다. 발갛게 상기한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가 많았다. 참 예뻐다. 그러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한편 가라앉았던 가슴속 상처를 휘젓는 것이기도 해 한 아이는 너무 힘들어 방황하기도 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영화가 완성되었다. 새벽 5시, 아이들이 작품이 완성되었다며 함께 보자고 한다. 시나리오도 필요 없었다. 자신들의 이야기니까. 장비라곤 스마트폰 하나에 집에 있는 도마와 철물점에서 사 온 대못이 전부. 가슴 속 불덩이와 밤을 새우는 능력으로 만들어낸 작품이다.

나는 아이들이 단편영화 '대못'을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 치유방법을 스스로 발견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자신을 치유하고 자신의 삶을 엮어가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참여하고 자신의 주도성이 발휘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연극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넘어가자. 자신들이 겪어온 이야기로 대본을 만들었다. 연극을 하는 아이들이나 보는 아이들이나 연극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자신들의 이야기니까. 보통은 연극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인데 이날의 연극은 연극이 끝난 후 절정에 도달했다. 자신이 연극을 보면서 가슴속에 털어놓고 싶은 분노, 그리움, 호소, 용서...등등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장면을 다시 재연했다. 그러면 그 장면의 배우가 나와서 상대역이 되어 주었다. 자신을 때리고 밤새도록 잔소리하던 아버지에게, 자신을 버리고 떠나 버린 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했던 선생님에게, 자신을 왕따시킨 친구들에게, 누구나 나와서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분노들이 터져나왔다. 용서할 수 없다는 아이들도 용서를 선언한 아이들도 모두 엉켜 엉엉 눈물을 흘렸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응어리진 감정이 예술로 표현될 수도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결국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었다.

10.

요즈음 들꽃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심심치 않다. 광화문 촛불집회에도 청소년들이 참석했다.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가겠다고 한 집회는 아니었지만 집회를 참여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받았을 때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다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란다

18세 참정권 집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청소년의 모습을 본다. 청소년의 목소리가 묻히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목소리를 더욱 크게, 그리고 더 많이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대책 토론회에서 절규했던 청소년의 모습이 스쳐간다. 가해학생으로서 토론에 참여했던 아이는 토론과정에서 폭력에 대한 강한 처벌과 그 처벌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격렬하게 항변했다.

"그래요. 처벌, 두렵지 않아요. 얼마든지 처벌해 보시죠. 학교에서 쫓겨나는 것,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더 자유로워지겠죠. 저는 제 안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에 대해 누군가로부터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11.

자립팜 이상한나라에 사는 청소년들과 실무자들 청소년활동가들이 만나서 청소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아무도 무시하지 못 할 짝소리>라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청소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로 선정된 것은 '성/연애/섹스', '돈과 소비', '시설', '사회참여' 4가지였다. 때론 울고 웃으면서, 마치 경험을 했던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흥분하기도 하면서 이야기 마당이 펼쳐졌다. 주로 청소년 당사자들의 발표를 중심으로 다른 참가자들이 이야기를 보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청소년들은 '짝소리'를 귀담아 듣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하고, 누군가 내뱉은 '짝소리'에 감응하여 또 다른 '짝소리'를 내뱉을 용기가 생겨나기도 했다. <아무도 무시 못 할 짝소리>를 들으면서 청소년에 대해 나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우쳤다. 나는 지난 22년 동안 청소년들 곁에 있어 잘 안다고 생각하곤 하지만 역시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객관적으로는 식민지 백성이 아닐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일에서 조차 배제되고 소외된 위치에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청소년들은 언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청소년들의 나라는, 사회문제로서의 청소년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고 길잡이 역할을 할 때, 거기에서 들꽃처럼 피어날 것이다. 청소년들 곁에 우리 사회가 함께 할 때 바로 거기에서 들꽃처럼 피어날 것이다.

Again,

청소년참여를 중심으로 한 지역운동

Youth

정 건 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Movement

청소년참여를 중심으로 한 지역운동

정 건 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1. 지역사회와 청소년운동

지역사회는 내가 삶을 살아 내는 곳으로 '생활공동체'로서의 공간이다.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대우를 받고 있는가? 청소년과 지역사회를 연결 지어 이야기 할 때면 관련 전문가들은 자원연계의 터전으로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에게 지역은 자원연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살아 내는 공간인데도 말이다. 지역은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 대상 이전에 그들의 삶이 존재하며 참여하는 공간으로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장소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는 청소년은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공동체 일원 보다는 입시만을 위한 학생의 신분권을 가진 관리통제의 대상으로 존재할 뿐이다.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지역사회는 이미 공간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인 유대감, 소속감 등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란 어떠한 곳일까? 심리적인 유대감과 소속감이 있을까? 우리 비청소년인 기성세대 들은 청소년들이 함께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을까? 그렇지 못했다.

지역은 청소년기가 끝나면 어떻게든 내 쫓으려고 안달 난 것만 같다. 수능 이후 서울 등 수도권으로 보내야만 된다는 목적을 암묵적으로 취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떠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괜한 열패감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까지 있다. 상당수 지자체장들의 교육공약은 서울의 유명대학을 목표로 하는 사업들이 많다.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는 19살 이후에는 떠나야 하는 공간으로 치부되는 것이다. 그들에게 지역사회는 오래도록 거주하며 삶을 나누는

공간이기 보다는 입시를 위한 수단으로서 접근되어 자신의 삶과 괴리된 섬과 같은 공간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서울 경기권 등 수도권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있으며 심리적 유대감 등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을까?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를 접근하는 그들만의 의미 파악 또한 쉽지 않다. 서울경기의 수도권 지역과 이외의 지역과의 차이도 있으며 다양한 공간상의 제약과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될 것이다.

지역사회의 주요한 관계의 문제는 청소년들로만 한정될 문제는 아니지만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시민적 관점에서 청소년들은 왜곡된 학생의 신분권이 강조되며 배제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그들도 한 세대로서의 역할이 존재하며 지역 시민으로서의 위치가 있음에도 지역 정책 추진 등 지역사회에서 입시대상으로서 고립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성인중심주의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통념에 의해 청소년정책, 교육정책 등 그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대부분의 모든 일들이 비청소년인 기성세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지역의 심리적 유대감은 개인 또는 사회적 역사와 문화에서 기인된다. 특히 지역 사람들과의 관계는 청소년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공동체 형성의 요인이다. 성인중심주의를 배격하고 청소년들을 지역사회 참여의 주체로서 인정하려는 노력이 없을 때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삶은 단절되어 더욱 폐쇄²³⁾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삶은 어찌해야 할 것인가?

나는 청소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시민으로서 참여해야 한다고 믿는다. 내가 삶을 살고 있는 공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피고, 이 시대의 정신은 무엇이며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하는지 성찰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긍정적 변화를 위한 움직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행위를 '청소년운동'으로 표현한다. 그 동안의 청소년운동은 몇 가지 주요한 관점으로 제시되어 왔다. 대부분 학생운동이나 교육운동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통념상 운동(movement)의 단어가 우리 사회에 내포하고 있는 일상적이지 않음에 입시

23) 청소년들은 지역에서 학생의 위치에서는 살고 있지만 시민된 삶을 존중받지는 못하는 비참여적인 존재로서 강요받고 있다.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순수한 청소년들을 그 누군가 배후조종한다는 배후 조종설로 비판당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 운동을 무엇이라고 규정했는가?

“일제시대의 2.8 독립선언과 3.1운동, 6.10만세운동과 광주학생의거, 그리고 4.19의거를 시작으로 한 60년대 이후의 민주화운동은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청소년들이 사회운동을 통해 이룩했던 역사이다.”²⁴⁾

“동학혁명운동과 관련하여 우리의 전통적 청소년운동의 정신적 여원이었던 화랑도 정신이 동학사상에 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⁵⁾

“단군이래의 홍익인간 이념과 화랑도의 충과 신으로 집약되는 정신은 이후의 각 시대 청소년운동의 맥으로 계승되어가면서 민족주체성을 형성하여 나갈 수 있게 한 주요한 바탕이 되고 있다. ... 종략 ... 청소년운동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 각자의 시대가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다.”²⁶⁾

청소년운동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큰 줄기로 보자면 대부분 사회변화의 운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제시대의 2.8독립선언과 3.1운동, 이후 4.19 등 그 시대의 역사적 문제의 중심적 역할로서의 사회 참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학생운동의 한 부분이거나 청년운동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 청소년운동의 정신이나 이념을 과거 홍익인간과 화랑도, 그리고 동학농민운동까지 연결해 설명하기도 한다. 몇 가지 논의와 연구, 그리고 현장에서 삶을 살고 있는 관점으로 '청소년운동'이라고 표현되는 대부분의 개념 설명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시대의 공간에서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어떠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참여'는 그들 삶의 공간에 청소년들의 권리가 반영되는 과정이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참여한다는 것은 권리와 책임을 가진 시민으로서

24) 이민희(2011). 한국과 독일의 청소년운동에 관한 비교사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8(4). 349-382

25) 선우기성(1973). 한국청년운동사. 금문사

26) 장혁표(1998). 교사교육연구. 35. pp 13-24

다양한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 전문적 기술을 통해 도와야 한다. 청소년운동을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청소년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 실제 자기 주도적 참여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도 있다. 또한 청소년운동의 핵심은 그 사회에 당면한 청소년인권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10대 이후의 기성세대가 그들을 이해하고 수평적 관계에서 함께 한다면 오히려 청소년운동은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다. 청소년운동을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그 시대, 그 공간의 어떠한 뜻과 목적, 이상을 세우고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여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게 지속가능한 운동의 확장을 꾀할 수 있다.

그 동안의 청소년운동 단체, 기관이라고 소개 되었던 다양한 곳들이 있다. 전통적으로 오래된 청소년단체들이 있는데 흥사단, 스카우트, YMCA, YWCA 등의 단체들에서도 청소년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더불어 최근 수년간 청소년 인권을 중심으로 진행해 온 아수나로 등의 청소년운동의 관점이다. 또한 청소년활동시설들에서 진행하는 청소년들의 활동을 운동으로 표현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러한 관점들은 차이가 있어 보인다. 아수나로 등 청소년인권 운동 단체들에서 청소년들의 권리와 해방을 위한 운동으로 집중하는 것²⁷⁾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청소년단체들은 청소년운동을 하고 있는가? 청소년계라고 표현되는 청소년시설에서의 활동은 청소년 운동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가? 다양한 논의가 쏟아지겠지만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다만, 청소년운동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청소년 참여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그들의 삶과 마주하고 있는 현시대의 문제들을 청소년 자신이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이나 사업 등을 위해서 청소년을 '대상화'하여 이용하는 일들은 청소년운동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기존의 청소년단체와 시설들은 어떠한가? 몇 가지

27) 청소년운동은 청소년들의 권리와 해방과 행복을 위한 운동이다. 좀 더 말을 붙여 본다면 '청소년에 대한 억압, 차별, 배제, 착취, 무권리의 문제에 맞서 청소년들이 더 자유롭게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운동'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 출처: 공현, 『오늘의 교육 2013년 3.4월호』 '청소년운동론' 예고편 에서

관점과 인식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각자가 속해 있는 단체와 시설에서 자신들이 평해 보는 게 좋겠다.

오래된 청소년단체, 청소년시설들과 최근의 인권단체들의 청소년운동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청소년참여 수준도 제각각이다. 어떠한 잣대가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하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청소년들을 자기 사업의 대상으로 쓰고자 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만큼은 청소년운동을 운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청소년운동'에 대한 나의 주장은 단순하다.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이 속한 삶의 공간을 꿈꾸고 이상으로 생각하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시키는 실질적인 활동의 과정 그 자체다. 지역사회의 기성세대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지지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연대하는 것이 청소년운동을 지속가능하게 돕고, 그들이 원하는 삶의 이상을 청소년과 비청소년 모두에게 안내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주요하다고 인식한다. 청소년운동을 하는 비청소년 청소년활동가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삶과 공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을 지지하는 기성세대들을 연대하면서 조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일을 한다. 결국 '운동(movement)'은 당사자의 어떤 뜻과 이상이 존재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움직임과 함께 사람들의 연대와 조직이 맞물려 확장될 때 사회적 변화는 이루어진다.

청소년자치연구소와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은 이러한 청소년운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나름의 고민을 가지고 설계한 플랫폼이다. '달그락달그락'은 청소년자치기구 청소년들이 사회참여, 경제, 역사, 블로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는 청소년위원회와 연구위원회, 그리고 자원 활동가와 후원자(달그락 지기)가 조직되어 있다. 나를 포함한 상근 활동가들의 주요한 일들은 이러한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모으고 함께 소통하고 그들이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과 지역의 다양한 기성세대들과 연대하며 조직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청소년참여 중심의 지역 운동에 대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달그락달그락이 만들어지게 과정과 활동에 대한 내용을 그 동안 블로그와 카페, 페이스북 등에 안내했던 글을 수정 보완 했다. 현장의 날 것을 그대로